



김수민 <산과 들>
2016, 130.3 x 97cm, Oil on canvas

성남미술은행^{SNAB}은 성남문화재단이 미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아트 세어링 프로그램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역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구입, 이를 다시 지역기업과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작가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보유한 회화,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은 작품가 기준 0.5~1.0%(월 기준)의 대여료로 일정 기간 소장 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의 대여 수입은 성남시 관내 문화복지기관 무상 대여 등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소중히 쓰일 예정입니다. 성남미술은행 | www.snab.or.kr

The Young Artists Center
청년예술창작소,
젊은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동행

Youn Sun Nah

I M M E R S I O N

나윤선 콘서트

2020 12. 16. Wed 20: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31-783-8000

정경화 & 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R E G E N S O N A T E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비의 노래

2020년 12월 20일(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R/8만원, S/6만원, A/4만원



MECA ©laurianghiteiu



MECA ©laurianghiteiu

물의 풍경을 사람에게 건네는 건축

By 메카

La MÉCA

프랑스 남서부 도시 보르도(Bordeaux)는 강을 품고 바다를 면한 하항(河港)이다. '물 가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보르도'를 발음하면 달콤한 포도향이 느껴진다. 과일과 채소와 곡식이 풍부하게 자라고 항구로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곳. 물을 낀 도시는 일찍이 번성하기 마련이다. 로마 시대 원형극장, 중세 고딕 양식의 성당을 비롯해 시대별 건축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즐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근거가 됐다. 여기에 21세기의 예술을 피워낼 공간이 추가됐다. 2019년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메카 La MécA.

가론(Garonne) 강변의 한 도축장 부지가 건축사무소 비야르케 잉엘스 그룹(BIG)과 프리스 프리아키텍츠(Freix Architects)의 협업에 의해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총 면적 12,000m²의 공간에는 공연 아트센터 OARA, 지역 아트센터 FRAC, 영화·문학·시청각 연구 기관인 ALCA가 각각 건물의 좌부·상층부·우부에 자리했다. 공연장·갤러리·영화관은 물론 예술가의 창작 공간이 함께 마련된 플랫폼인 셈이다. 건축적 아름다움은 땀 뚫린 중앙부 광장 덕에 더욱 빛난다. 가론 강이 액자에 담긴 듯 건너다보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와인을 마실 수도,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가 비야르케 잉엘스(Bjarke Ingels)는 이곳을 '빈 캔버스'라 칭했다. 각자가 지닌 아이디어, 창조성, 휴식의 즐거움이 깊고 뭉근히 마음에 돌아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일. 그것이 아름다움을 과시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가능하리란 작은 바람일 것이다.

글 이아림 객원기자
사진 제공 라 메카 la-meca.com

Contents

02

Viewfinder

메카
이야림

COVER STORY



08

예술로 다가서기

청년예술창작소의
탐색과 도전
김문영

12

인터뷰

청년예술창작소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김문영

18

칼럼

진정한 청년예술지원을
생각하다
안태호

VIEW



22

인터뷰

〈성남의 발견〉전
공모 선정작가 이나영
남소연

26

다시보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김주영

28

미리보기

〈생생화화生生化化〉-
8 Artists Voyage 展
박동기



30

미리보기

성남아트센터
12월 공연 모음
남소연

ART CURATOR



36

이슈&트렌드

10대를 움직이는
'숏폼' 콘텐츠
임수연



40

취향의 책장

빈센트 반 고흐의
모든 것
이다혜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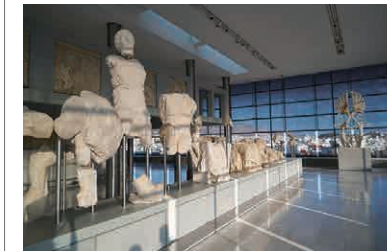
영화 속 클래식

〈엑스 마키나〉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김성현

46

문학과 책

'책모임'에 관한 책
한소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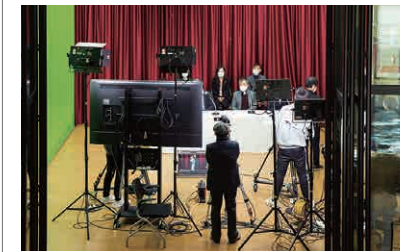


48

아트 시티를 가다

그리스 아테네
이은화

INSIDE SEONGNAM



58

라운드테이블

2020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온라인 포럼
남소연

64

독립예술영화관

〈킴, 투게더〉
정지혜

66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성남문화재단
소식

72

캘린더

청년예술창작소,
젊은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동행

The Young Artists Center

08 예술로 다가서기

청년예술창작소의 탐색과 도전

12 인터뷰

청년예술창작소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18 칼럼

진정한 청년예술지원을 생각하다



청년 예술 창작소



청년예술창작소의 탐색과 도전

평범한 지하상가에 색을 입히다

성남 중원구 성남동 중앙지하상가에 문을 연 청년예술창작소는 지난 1년간 흥미로운 예술 실험으로 시민과 함께해왔다. 이곳에서 청년예술가는 공공예술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상인과 지역주민은 일상 속 예술 활동의 즐거움과 가치를 경험한다. 청년의 예술 활동과 상인이 겪는 삶의 치열함도 하나의 세계에서 섞이고 어우러질 수 있을까. 빈 공간을 채우고 색을 입히는 청년예술창작소의 탐색과 도전이 시작됐다.

지하상가의 빈 점포에 불이 켜지고 작업하는 소리가 들려 오면 상인들은 어떤 공간이 생기려는지 호기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눈빛을 주고받았다. 2019년 9월, 공사를 마친 청년 예술창작소가 모습을 드러내고 담당 직원이 상주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청년 예술가가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찾아 온 사람도 있고, 지나던 길에 어떤 곳인지 궁금해 들어와봤다는 사람도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상가를 드나들 때면 무심코 지나치던 공간에 색이 생겼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싶고, 방문할 이유가 있는 공간이 됐다.

청년예술창작소는 성남문화재단이 신흥동과 태평동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한 창작 공간이다. 청년예술가를 지원해 성남의 공공예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상권 부흥을 기대하면서 성남 중앙지하상가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네 개의 스튜디오에 운영사무공간과 전시공간, 연습공간, 다목적공간 등을 갖추고 자유로운 창작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년예술가와 주

민이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와 일상의 감흥을 예술로 표현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장이다.

비대면 소통과 상가 알리기 프로젝트

개소 첫해인 작년에는 파크프로젝트, 생강컴퍼니, 로컬스프리 등 청년예술가 세 팀이 중앙지하상가 특색에 맞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로 주민들을 만났다. 파크프로젝트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지하 공간을 숲과 하늘 이미지로 꾸미고 히말라야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상 도구인 싱잉볼을 이용해 공연과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강컴퍼니는 중앙지하상가를 배경으로 독립영화를 촬영해 발표하고 개성 넘치는 패션쇼를 열어 지역주민을 상가로 초대했다. 로컬스프리는 청년예술창작소 스튜디오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댄스 교실을 여는 한편으로, 상가 점포를 찾아가 함께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가졌다.

2020년에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본격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청년예술창작소 개설 취지

10.14.(수)~ 11.30.(월)

1인 청년 예술가 명상점포 조성

정원숙_장막 10.14.(수)~10.26.(월)
한성미_보존 11.04.(수)~11.16.(월)
정원숙_성남중앙시장 11.19.(목)~11.30.(월)

청년예술창작소 스튜디오 3

031.721.8124





진행하기 위해 제작 키트와 영상을 제공했다. 상인의 삶과 상가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도 있었다. 로컬스프리는 댄스 교실 프로그램을 온라인 영상 수업으로 대체하는 한편으로, 중앙지하상가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댄스 중심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텔아트컴퍼니는 참가자의 이야기를 '사람책'으로 엮어내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구두 수선 장인이 소개하는 구두 관리 노하우처럼 일상 속의 흥미로운 소재를 다양하게 발굴했다. 루밍은 상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과 가게 브랜딩 작업을 접목했다. 상인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으로 쇼핑백을 제작해 가게마다 소비자에게 보여줄 특색을 찾도록 도왔다.

청년예술가의 개성과 열정을 만나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진 늦여름부터 청년예술창작소에서는 중앙지하상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민에게 소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과 함께한 <성남미감(美感): 2020 중앙지하상가 아케이드 프로젝트>다. 이 대학 회화·조소과의 임흥순 교수가 추천한 청년예술가 다섯 팀은 성남의 역사, 환경, 상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물을 청년예술창작소의 접이식 유리문을 활용해 선보였다. 상가 점포의 오래된 물품을 촬영한 사진, 예술가의 시선으로 성남의 다양한 매력을 포착한 그림과 영상, 재개발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드로잉 등 다채로운 비대면 전시가 진행됐다. 중앙지하상가 식당가 상인들이 참여한 음식 다큐멘터리도 비대면으로 상영됐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상점 물품들을 활용, 십장



에 따라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다섯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린 마인드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파크프로젝트는 명상과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 대부분을 SNS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화상 회의로 전환했다. 프로젝트에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지향했다. '유미미소'라는 제목으로 공기 청정기 만들기, 각테일 제조하기, 약기 만들고 합주하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비대면으로



생 동물들을 오브제로 제작한 '십장생'은 작업 과정까지 공개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인 청년예술가 집중조명 2020>으로 이어졌다. 지역예술가 3인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개한 릴레이 전시다. 정은송 작가는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등 오감의 낯설고 이질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시각전시 <각각>을 진행했다. 두 번째 주자인 한상아 작가는 2012년 성남아트센터 신진작가 공모전 대상의 주인공이다. 먹과 모필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수묵화의

선으로 내면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출품했다. 정윤호 작가는 세상을 보는 시선을 화면 속 질감과 조명에 빚대어 표현한다. 사람과 현상이 갖는 모순과 다양성에 집중한 전시 <작가 탐구생활>을 진행했다.

세 작가의 전시 모두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과 청년예술창작소 전시 공간의 유리문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릴레이의 첫 전시가 끝나고 두 번째 전시를 앞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년예술창작소에서는 '똑딱똑딱 예술창작소' 결과물을 선보이는 비대면 전시가 열렸다. 지역어린이와 함께한 이 프로젝트는 참가자가 워크스로 수업 재료를 받아 각자의 공간에서 영상으로 수업에 참여한 활동이다. 청년예술창작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세상과 소통하려는 청년예술가의 열정도 한결같을 것이다.

- 01 <1인 청년예술가 집중조명 2020> 프로젝트로 만난 정은송 작가의 전시 <각각>
- 02 <1인 청년예술가 집중조명 2020>의 두 번째 주자인 한상아 작가는 광목천에 먹으로 그린 그림들을 선보였다
- 03 <1인 청년예술가 집중조명 2020>의 세 번째 주자인 정윤호 작가의 전시 <작가탐구생활>
- 04 <성남미감(美感): 2020 중앙지하상가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함께한 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의 신희사진관 팀
- 05 지하상가에 예술의 색을 입히는 청년예술창작소 외부 모습

글 김민영 객원기자 | 사진 최재우

청년예술창작소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삶의 치열함과 함께하는 예술 실험

청년예술창작소는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플랫폼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거점으로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2020년에는 공모를 거쳐 선발한 다섯 팀의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지하상가의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이 공간으로 초대했다. 연초부터 예고 없이 시작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창작소 문이 닫힐 때도 있었지만 예술가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생각과 활동을 펼쳐 보였다. 2020년 청년예술창작소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섯 팀을 만나 예술로 시민에게 다가간 과정, 청년예술창작소의 기능과 비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Q1

2020 청년예술창작소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계기와 프로젝트 내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다영(루밍) 루밍은 예술이 가진 치유 속성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 있는 팀입니다. 청년예술창작소라는 공간 자체에 흥미를 느낀 게 계기였어요. 창작소가 위치한 지하상가는 지은 지 오래되어 낡은 공간이면서도 삶에 향하는 상인들의 열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상인들, 주민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예술 활동을 해 나가는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상인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커넥트(Connect)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요약하자면 각 상점이나 상인의 정체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 그림을 도안으로 활용한 쇼퍼백들을 만들었습니다.

정용한(텔아트컴퍼니) 텔아트컴퍼니는 예술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에 관심이 많은 단체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청년예술창작소에서 사람책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사람책은 저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삶을 글과 그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책으로 묶어 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성한 책을 전시하고 상시 대여도 가능한 사람책 도서관을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남 문화재단이 청년예술가를 활발히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지원사업이 저희의 역량을 펼치고 공공예술에 참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정선주(로컬스프리) 로컬스프리는 댄스에 특화된 창작 단체예요. 어릴 때부터 활동해온 댄스 크루들은 성남종합시장 같은 곳에서 공연을 열고 즐겁게 놀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성



01, 02, 03, 04, 05
정용한(텔아트컴퍼니), 정선주(로컬스프리), 강다영(루밍), 황지희(프로젝트에이), 구래연(파크프로젝트)

남이라는 지역에 추억이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활동가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과 함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적인 노래와 춤, 눈길을 끌 수 있는 퍼포먼스로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해 성남시를 대표할 만한 거리의 댄스 배틀 행사로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온라인 프로젝트로 변경하는 바람에 충분히 펼치지 못한 것들이 아쉽습니다.

황지희(프로젝트에이) 작년 시범사업을 보면서 청년예술창작소를 알게 됐고 예술가들이 타인과 만나 배우고 느낄 점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위크숍 공간처럼 생각하고 '유의미소'라는 이름 아래 시민과 함께할 세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했어요. 미술 프로그램, 악기를 만들고 합주하는 프로그램, 공기 청정기 만들기, 칵테일 만들기, 길고양이에 관한 이야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구래연(파크프로젝트) 올해는 작년에 시범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그린 마인드 프로젝트의 뿌리를 유지하면서 중앙지하상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치유 활동과 참여 활동이 두 개의 큰 뿌리인데 작년에 상가 분위기를 접하면서 올해에는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을

많이 고민했어요. 바쁜 상인들이 창작소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면 우리가 찾아가자 생각하고, 점포에서 잠깐의 짬을 이용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 같은 걸 준비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요.

Q2

프로젝트의 취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황지희 지역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됐던 상가가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비 방식이 달라져서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만은 아니다, 지역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주민과 예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지역별 차이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쪽은 휘황찬란한데 다른 쪽은 6시만 돼도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는 지역 차이가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기 신흥동은 그 중간 지점 이면서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놀자, 추억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했죠.

강다영 창작소가 중앙지하상가에 있기 때문에 상권을 떠나서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기 어렵다, 상인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상인이 창작소에 와서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해보기를 바랐어요. 인근 주민도 이곳에 와서 상인의 작품을 보고 예술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게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는 걸 느끼고 함께하기를 기대했고요.

Q3

코로나19의 영향도 언급하셨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이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래연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원래 프로젝트 성격은 유지하되 만나는 공간을 온라인으로 바꿔보자고, 창작소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공동 작품을 만드는 활동은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어요. 명상 프로그램은 원래 싱잉볼이라는 명상 도구를 이용해 안정을 찾고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인데, 소모임을 가질 수 있

는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겪었죠. 결국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만나는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정용한 저희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사람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기록하고 책을 낸 분들이 모여 책을 나누는 킥퍼런스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황지희 저희도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영상으로 대체했어요. 약기를 만들고 합주하는 프로그램은 키트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연주해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각테일 만들기나 공기 청정기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도 키트를 받아서 각자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이 늦은데다 중간에 멈추고 결국 시간이 빠듯해져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선주 댄스 프로젝트는 대중과 함께하고 대중에게 보여줘야 하는 성격이 강한데 거의 영상이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소규모로 대면 수업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고요.

강다영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5인 이하 소규모 모임을 시도했는데, 생각 못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와 비대면 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대세가 됐는데,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같은 분

들은 반대로 창작소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힘든 분들, 그래서 더 많이 소외되는 분들이 창작소를 방문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19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Q4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셨나요?

정선주 중앙지하상가를 다녀보면 구역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고 폐업 정리라는 안내문이 많은 구역이 있죠. 상인에 따라 저희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찾아가서 댄스 챌린지를 하고 인터뷰도 해서 가게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용한 주민과 상인 열 분과 사람책을 제작했는데, 상인들은 점포를 비우고 청년예술창작소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분들이예요. 점포를 찾아가 물건을 하나 사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하시겠냐고 여쭙보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의 관심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상인의 주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접근 방법이 필요했죠. 예를 들어 구두를 닦는 분께는 구두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그분만의 정체성이예요. 그 노하우가 거창한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사람책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구래연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은 화장실도 겨우 가고 밥도 배달시켜 점포에서 드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인들이 창작소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작소를 지나는 길에 잠시 들러 할 수 있는 것들, 주사위를 한 번 굴린다든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했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 활동의 취지와 목표에 가까운 것들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요.

황지희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상인,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고기까지 구워봤어요. 그런데 고기를

구워도 주민들은 쉽게 저희의 공간으로 못 들어오세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곳에 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학부모들과 시작해서 학생들로 참여 대상을 넓혀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상자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둘러볼 때였어요. 그곳에는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노인 돌봄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고객이니, 고객이 상가로 발견음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이야기했죠. 소비력이 높은 30대 여성, 아이를 둔 학부모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설정한 이유예요.

Q5

청년예술창작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도 고민하셨을 법합니다.

황지희 상가 지도를 만든 것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상점 정보가 나오고 업종별로 색이 달라서 한눈에 상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예요. 이 지도를 완성하기까지 점포 위치 수정만 여섯 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가게가 일주일 동안 닫혀 있어서 폐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선주 창작소와 상가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작업 중이에요.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 공간을 매력적이고 멋진 곳으로 느끼도록 표현하는 게 핵심이죠. 그곳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처럼 대중적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했고, 이런 시도가 상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다영 상권 활성화는 저희 프로젝트의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상인들이 예술적 경험만이 아니라 예술로 인해 상권이 부흥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죠. 함께하는 예술적 표현을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게 그림을 그려 쇼핑백을 만드는 활동의 핵심이에요. 저희는 상점의 개별성이 부



07



08

06 델아트컴퍼니의 사람책 만들기 강연 영상
07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그린 그림들. 루밍 팀은 이 그림으로 각 상점에서 사용할 쇼핑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08 로컬스프리는 중앙지하상가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대중적인 노래와 춤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족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어떤 상품이 이곳에만 있거나 이곳에 특별한 재미가 있어야 소비자가 찾을 것 같은데 그런 특색은 잘 안 느껴졌다는 거죠. 상인의 독특한 정체성에서 상가의 특색이 생기고 표현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3차에 걸쳐 총 28분이 참여하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다채롭고 훌륭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낯설어 했던 분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셨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 상점 브랜딩에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 있다고 보셨고요. 의외였던 것은 상점마다 상품과 서비스를 내세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신을 상점, 상가와 동일시하고 적극적으로 브랜딩하는 분도 있었고 아예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가족 이야기를 풀어내신 분들도 있었어요.



06

이번 강의는 인문학식으로 진행이 되고 제목은

Q6

지역주민이 청년예술창작소, 혹은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시 보고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정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본도심에서 20여 년 살았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분당으로 이사 갔다가 돌아와서 오랜만에 중앙지하상가를 찾았는데 두 가지에 놀랐대요. 하나는 화장실이 완전히 바뀐 것, 또 하나는 청년예술창작소가 있다는 것. 창작소 연습 공간에 와서 자기 작업을 해도 되냐고 묻는 젊은 친구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이런 공간을 좋아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구래연 저는 성남문화재단이 중앙지하상가에서 진행했던 빈 점포 프로젝트 중 이동식 도서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트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빌려드리고 회수하고 상인들은 자기 자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다니는 형식이 중앙지하상가라는 장소 특수성에 가장 적합했다고 봐요. 창작소 공간도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할지,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업 공모 단계부터 상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일반적인 시민 참여 프로젝트와 상가를 거점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그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강다영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술 프로젝트라고 하면 '젊은 예술가가 쇠락하는 상권을 찾아가서 젊은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젊은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만난 상인들 중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개입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아이템과 경쟁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권에 찾아온 예술가를 탐탁잖게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갈등 요소를 잘 파악하고 상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해의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예술가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인과 소통하고 상권에 기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정선주 상인 대표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영향과 지속성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성남의 여러 단체들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찾아오는데 너무 가볍거나 흐지부지되고 중단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창작소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고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지속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09 프로젝트에이의 비대면 수업 촬영 현장
10 파크프로젝트가 참가자와 함께 완성한 작품.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게임과 채팅을 하며 작업 과정을 공유했다

Q7

청년예술창작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정용한 제 입장에선 창작소라는 명칭 앞에 청년이라는 말이 붙어선지 이 공간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찾게 됐던 것 같아요. 팀원들과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모여 회의하느라 공간이 필요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좋았고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다영 방역 때문에 동네에 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창작소가 열린 걸 보고 들어와서 활동을 지켜보다 가신 적도 있어요. 본인이 뭔가 하지 않아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물론 들어오기 주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분들을 창작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선주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전까지 쌓아온 제 인프라와 점점 멀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댄스는 변화가 빠른 장르거든요.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과의 접점이 줄어들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멀게 느껴졌던 20대 초반 청년들과 작업할 기회를 얻었어요. 예술가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창작소가 꼭 상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예술가의 연대를 돕고 동떨어진 세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구래연 창작소의 운영 방향과 정체성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이 될 것인지, 청년예술가를 지원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강다영 상인과 인근 주민을 모두 만나 활동해보니 두 종류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황지희 그렇다면 좀 더 유연하고 섬세하게 사업과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이 꼭 창작소를 찾아와서 진행되는 형태의 프로젝트만 필요할까요?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청년예술가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다양한 방

Q8

팀원들이나 여기 계신 대표자들이 올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배운 것이나 예술가로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황지희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행하기 쉽고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뼈딴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고 성공적인 프로젝트에서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어렵게 듣는 이야기, 젊은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고 그게 제 작업의 아이টে이 됩니다.

정선주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즐기면서 유명해진 분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작업에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춤을 왜 추는지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해보고 싶다고, 여럿이 뿔뿔 뿜쳐서 함께하는 게 각자의 춤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구래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계획이 바뀌었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데이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상가에서 청소와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선물과 편지를 전달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반응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동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시도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저희 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영 저희가 만난 상인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치유를 경험했다고, 점포에 매여 있는 입장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들려주셨어요. 예술의 치유적 속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실제로 가능할지 한편으로 의구심도 품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게 뜻깊은 수확이었습니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공공기관 언저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청년예술가와 관련한 몇 가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된 것은 청년 세대를 대상화하거나 사업에 그저 활용하려는 태도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었다. 청년사업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활동들이 공공기관의 표준이 되면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꾸준히 가져다 쓰지만 막상 청년에 대한 이해도, 공감도 없는 차갑고 기능적인 사업들을 보게 된다.

이런 관성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붙잡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제도·정책 영역이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고, 삶의 조건 전체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청년예술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 역시 길게 잡아도 10년 안쪽이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세대론 논쟁에 불을 붙인 이후 청년담론이 사회적으로 유통되며 이전까지 신진예술가-중견예술가로 구분되어 있던 예술계의 세대 구도가 급격하게 청년예술가에 대한 조명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에서 청년예술가들과 무엇을 도모하려면 우선 청년들을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욕구와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두 번째는 반응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자기발화하는 청년들에 대한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정책의 목적에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실행한 청년예술가들의 POP(Practice of Project) 사업에 멘토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학습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의 진화 버전으로 청년들의 프로젝트 구현까지 가려던 구상은 예산의 한계로 좌초됐지만, 소액 지원으로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하는 일련의 시도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청년과 정책의 경계 혹은 관계

세 번째는 경계를 넘는 법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청년예술가들은 제도·정책과 만나는 지점이 협소할 수밖에 없다. 지원사업에서 포트폴리오와 경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력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데 나는 그 경력을 어디서 쌓으란 말이지' 하고 하소연하는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된다. 최근에 만난 한 청년예술가 그룹은 청년들의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

01 성남 중앙지하상가에 문을 연 청년예술창작소.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다

한 전시를 자기 단체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들은 일부러 공공기관과 연결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년들이 참여해 이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었다. 이제 제도 영역에서도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최초 예술지원'이나 인천문화재단의 '바로 그 지원' 같은 사업들이 그렇다. 청년예술가들은 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혹은 정산과 관련한 이런저런 안내를 받으며 공공영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의 프로젝트콜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된다. 예술지원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운영되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의 경우 무정산이라는 실험을 도입하며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여전히 제도의 벽을 넘기 힘들어 시상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청년예술가 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네 번째는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단 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최근에는 예술가들과 지역의 관계 맺음이 그렇게 드물거나 낯선 일이 아니지만,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 사업의 심사에 참여하며 청년예술가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나와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세계를 확장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됐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도 사회와 예술가의 관계 맺음에 대한 실험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예술가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정책 흐름이 되었다. 신진예술가의 활동은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이는 또 사회적으로 예술이 자기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기관의 지원은 한정된 재원부터 사업의 지향까지 항상 어떤 한계를 상정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기관 종사자들의 뚝은 한계점을 현실에 맞춰 한 뼘이라도 더 밀어내는 것이다. 청년을 호명하고 수단화하는 불편을 넘어, 청년예술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공의 성숙한 제도 설계를 기대한다.

글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민예총 활동가를 시작으로 웹진 <컬쳐뉴스> 편집장과 부천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 등을 거쳤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예술경영> 편집장을 맡고 있다.

진정한 청년예술지원을 생각하다 불안하게 서성이는 청년을 위해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불릴 때, 우리는 부르는 주체가 마술을 걸어둔 그 이름의 속성에 반응하게 된다. 사회가 청년이라는 명명에 담아내고 싶은 것은 언제나 청년다운 패기, 두려움을 모르는 돌파 정신, 젊음에 기반을 둔 활력이다. 그러나 청년의 눈앞에 놓인 것은 사회라는 거대한 벽이다. 청년이라는 개념이 보여주는 현실은 청년이라는 '이상'과 청년이라는 '잉여로움' 사이 어딘가쯤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예술가에게 말 걸기

이는 청년예술가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들이다. 청년예술가는 두 갈래의 지칭이다. 하나는 생애주기에 맞춘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지칭이며, 또 하나는 청년예술가들이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한편으로 이 기대는 정당하다. 모든 시대는 후속 세대의 창발에 의해 지속되어왔다. 기성의 질서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곳에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들이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불안은 최근에 더욱 가중되는 듯싶다. 기술의 진화가 인간 존재의 근본을 묻고 있는 지금, 청년예술가들은 안녕한가. 제도가 청년을 호명하고 다루는 방식은 나아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이라는 말은 어쩐지 불편하다. 단지 내가 더 이상 청년이라고 주장할 생물학적 시효가 만료되어서 부리는 심통은 아니다. 청년이라는 명명에는 머쓱한 현실, 혹은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사회적 포장이 드리워 있다. 서북청년단의 광기와 4.19 청년들의 의기, 70년대 청년의 낭만과 80년대 청년의 저항, 90년대 이후 청년들의 재기와 현재 청년들의 사회적 곤란을 하나로 묶어 부를 수 있는 걸까? 청년이라는 말 앞에서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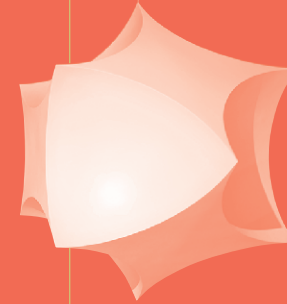
8 Artists Voyage

2020 경기예술창작지원 시각분야 성과발표展 : 생생화화 生生化化
Gyeonggi Visual Art Achievement Exhibition : Breath of Fresh Air

2020.11.06.FRI - 12.20.SUN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KANG JI YUN
KIM SI HA
KIM WOO JIN
KIM EUN SOOK
ROH KYUNG TAEK
SONG MIN CHUL
SONG SOO YOUNG
CHO TAE GWANG



22

인터뷰
〈성남의 발견〉전
공모 선정작가 이나영

26

다시보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28

미리보기
〈생생화화 生生化化〉-
8 Artists Voyage 展

30

미리보기
성남아트센터
12월 공연 모음



VIEW





1
 이나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누구나 어린 시절 가슴 한편에 간직했을 네버랜드를 생생하게 되살린다

2
 <피크닉>, 2020, 100×73cm, 장지에 채색.

<성남의 발견>전 공모 선정작가 이나영

네버랜드를 찾아서

유년 시절 두근대던 발표회 무대, 잔디밭 위 유쾌한 피크닉.
 이나영 작가는 모두의 기억 어딘가에 자리한 어린 시절의 풍경을 소환한다.
 추억으로, 혹은 환상으로 색색의 결을 더한 그 모습은 어린 시절 한 번쯤 꿈꿨던 네버랜드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 그 어딘가에서 빚어낸 세상,
 이나영 작가의 두근거리는 네버랜드가 모두를 기다린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나영 작가를 사로잡은 공간은 도서관이었다. 책장마다 두껍게 내려앉은 세월만큼 저마다의 이야기를 머금은 장소. 고요한 서가를 가득 채운 사진집과 미술 서적을 들춰 보며 가만가만 드로잉을 연습하던 순간들. 사진,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기억에 대한 애착은 그때부터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사진 속 나와 내 주변의 모습,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문득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그저 과거의 모습이 아닌 익숙함과 낯섦이 동시에 전해지는 생소함에 자연스레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진을 매개로 콜라주와 드로잉 등 크고 작은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화폭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작가의 유년 시절 혹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이질적인 풍경과 이미지가 다양한 감정과 방식으로 뒤섞인다. 겨울이면 환하게 반짝이던 크리스마스 풍경과 캐럴, 유럽풍 일러스트가 가득하던 카드, 미지의 어딘가를 상상하던 외국 작가의 동화처럼, 온전히 우리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익숙했던 문화들 역시 기억 속 이국적인 잔상으로 작품에 소환된다. 대학 졸업 후 이어진 영국 유학 생활 속,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마주했던 일상 역시 작가에게 자극을 더해준 순간들이다. “어린 시절 기억에 자리한 상상의 풍경들, 매체를

통해 접하던 유럽의 모습과 실제 살면서 경험으로 접한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먼 타국에서 검은 머리 이방인으로 자리한 제 모습이 스스로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자극과 고민, 기억과 현실 사이의 무언가가 지금의 작업으로 이어졌죠.”

기억과 상상이 만난 특별한 세계

친근한 인물들과 이질적인 풍경, 어쩌면 막연했던 상상의 조각들은 캔버스 위에서 조화롭게 연결되며 하나의 세상으로 완성된다. 교회 크리스마스 공연 무대에 선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무대>는 작가의 기억인 동시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풍경이다. 어느 순간 우리 고유의 문화처럼 친숙해진 크리스마스의 풍경. 연말 느낌 물씬 한 붉은 커튼, 화려한 상들리에로 꾸며진 무대에 선 검은 머리 아이들은 하얀 눈송이와 더불어 ‘낯설지만 친숙하고,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이질적인’ 어딘가에 위치한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백조 역시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백조왕자>의 잔상, 유학 시절 흔하게 마주치던 백조의 모습처럼 작가의 과거와 현재, 상상과 현실이 녹아든 오브제이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싱그러움 녹색의 톤, 선명한 색채감은 자칫 색이 바랄 수 있는 상상에 생생함을 더한다.

“기억의 어떤 순간을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표현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레 그런 색감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배경에 식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어떤 비현실적인 분위기, 무성한 잎새 사이에 여러 이야기를 숨겨놓은 듯한 느낌에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해서죠.”

작업에서 즐겨 사용하는 동양화 재료들 역시 작품의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들이다. 전공은 서양화였지만, 민화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동양화 재료들은 작가의 상상을 현실로 가장 충실하게 구현해주는 매개체다.

“동양화 특유의 섬세한 느낌을 참 좋아해요. 유화는 차곡차곡 바르며 중첩해가는 느낌이라면 동양화는 종이에 물감이 스며들면서 색이 나오는 깊은 느낌이 있죠. 강한 색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3

에는 분체를 사용해서 선명함을 표현합니다.”
 이나영 작가의 전시 <네버랜드>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관객을 만난다. 성남 지역의 재능 넘치는 작가를 공모, 선정하는 <성남의 발견>전의 일환이다. 올해의 선정작가로서 작가가 펼쳐내는 기억과 꿈, 현실과 상상이 다채로운 풍경으로 펼쳐질 것이다.
 “네버랜드라 하면 보통 어린아이들이 사는 세상을 떠올리지만, 직역하면 있을 수 없는 땅이기도 하죠. 실존하지 않는 어떤 이미지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 이질적인 풍경들이 함께 만나는 제 작업과도 잘 맞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엔 재미있는 상상을 참 많이 했는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 그런 감정과 멀어지잖아요? 나 자신의 세계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어떤 세계와의 마찰, 그

기억과 상상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한 번쯤 경험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제 작업을 보면서 저마다의 기억과 느낌으로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없다면 삶이 너무 밋밋하니까요.”
 어린 시절 가슴 한편에 간직했던 저마다의 네버랜드. 기억 위에 내려앉은 세월의 수북한 먼지를 가만히 걷어낸다면, 어쩌면 네버랜드는 우리 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가장 푸르고 싱그럽던, 그 시절의 동심으로.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 사진 최재우

2020 <성남의 발견>전: 이나영
 <네버랜드>
 일시 11월 27일~12월 20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1-783-8142-5

3
 <무대>, 2019,
 61×73cm,
 장지에 채색



이나영, 2020, 100x73cm, 장지에 채색

2020 성남의 발견전: 이나영

네버랜드 Neverland

2020.11.27.(금) - 12.20(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여전히 눈부신 진화의 순간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이 지난 11월 13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1일 2회, 짝 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던 이날 연주는 음반과 실황의 장점을 고루 갖춘 호연으로, 조성진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값진 순간이었다.



는 거창한 화두를 붙일 필요도 없이, 연주자들의 일상 속 분주함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갈림길에서 생겨난다. 두 길 사이의 각도가 좁을수록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선택의 고민이 아예 없어질 리도 없다.

세계 최고의 콩쿠르, 최고의 음반 레이블이라는 '제도권'에서 톱 스코어를 찍으며 승승장구하기까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노력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힘들다. 관심이 가는 작곡가도 수없이 많고 다루고 싶은 작품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의욕 충만한 20대 중반의 음악가가, 정해진 틀의 음악적 기준과 레퍼토리 속에서 모범 점수를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그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준 쇼팽 녹음들과 특별한 해를 기념하기 위한 드뷔시의 마스터피스, 현대적 세련미와 고전과 양식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냈던 모차르트 녹음에 이어 발표한 앨범 <방랑자>

2020는 그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아이디어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는 반가운 증거들이다. 그간 라이브 무대에서 음반의 모습과는 다른 즉흥성과 카리스마 넘치는 오라^{aura}로 청중들을 놀라게 했던 조성진은 슈베르트, 베르크와 리스트의 작품 속에서 음반임에도 번득이는 재치와 창의적인 발상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

지난 11월 13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2회에 걸쳐 열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나19의 방해로 더욱 맘을 풀이게 했던 반가운 독주 무대에서는 음반과 실황의 장점을 고루 갖춘 호연을 들려주었다. 생각과 고민을 거듭할수록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슈만의 시상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리듬이나 의식적으로 비슷비슷한 모티프를 잦은 빈도로 배치하는 독특한 기법 때문이기도 하나, 작곡가의 광기에 완전히 빠져 그 요소들을 즐기지 않고서는 설득력 있는 연주를 해내기 어려운 것이 슈만의 세계라고 생각된다. 그의 <유모레스크(Humoresque)>는 우스꽝스런 정서보다 인간의 땀, 눈물 등 감정의 결정체인 체액을 뜻하는 '유머(humor)'의 원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성진의 슈만은 모호하지 않은 솔직함이 최대의 매력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작곡가의 비정상적인 열광을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다가선 결과라고 생각된다. 센티멘털과 달콤함의 교차점을 교묘한 아고지^{agógica}으로 녹여내고, 열정과 우울의 양면을 담백하면서도 화사하게 그려낸 조성진의 해석은 결과 속이 모두 아름다웠다. 템포와 조성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최대한의 깊은 표현을 뽑아내면서도 전체를 이루는 다섯 섹션의 장면 전환만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연출도 훌륭했다.

난곡을 마주하는 조성진의 방식

시마노프스키의 탁월한 모음곡 <마스크>는 제목 그대로 몇 겹의 반투명 보호막으로 가린 듯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더욱 매력적인 작품이다. 세 곡의 제목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인상주의와 후기 낭만, 동유럽 특유의 신비주의가 섞여 있는 작곡가의 두터운 텍스트가 흥미로운 '가면'이 되어 들는 이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 난해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성진의 자세는 매우 외향적인 비르투오소의 모습이었으며, 순간의 영감을 소화해내기 위한 즉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기존의 연주자들이 규모가 큰 난곡의 전체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짜 맞춘 구도대로 청중을 이끄는 방법을 택한 반면, 조성진은 거침없이 작품 속으로 뛰어

들어 마주치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홍수와 기괴한 화성, 묘하게 비틀린 리듬들을 듣기 좋게 재구성하는 모습이었다. 세 곡 중 가장 중요한 '세에라자드'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설정과 작품이 지닌 상징성을 일관성 있게 설명했고, '광대 탄트리'에서는 주인공 탄트리의 일그러진 행복감과 비애감을, '돈 주앙의 세레나데'에서는 폴란드인 시마노프스키가 설정한 스페인적 정서의 캐리커처를 넘치는 에너지로 표현해냈다.

누가 연주해도 물음표를 떼어내기가 불가능한 리스트의 난곡이 소나타 b단조다. 창작 당시부터 수수께끼를 많이 남겨놓은 작품인데, 작곡가의 의도가 그러했다면 오히려 그의 문 부호를 크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다. 비르투오시티를 전면으로 내세워 시원시원하게 리스트의 작품 속 난제들을 헤쳐 나간 조성진의 해석 방법은 늘 흥미로운 실험을 즐기는 그의 연주 스타일을 대변하는 듯했다. 음원 녹음과 수많은 무대에서 다진 경험은 대곡에 편안하게 접근해 핵심 요소를 명확한 선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리스트가 구상해낸 가장 커다란 소나타 형식의 대곡은 조성진의 손에 의해 응축된 에너지와 매력적인 메시지를 담은 걸작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었다. 숨 가쁘게 몰아치는 기교의 향연 속에 다양하게 놓인 파우제와 흥미로운 루바토에서는 젊은 대가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느껴졌다.

이번 투어 내내 그가 들려준 앙코르 퍼레이드는 또 하나의 화제였다. 20대 청년의 체력이지만, 하루에 두 번 치러지기도 한 독주회에서 가히 3부 무대라고 할 만한 긴 분량의 앙코르 곡들은 청중을 위한 배려인 동시에 연주자의 의욕이 자연스럽게 느껴진 부분이었다. 욕심 많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위로 향하는 새로운 계단을 하나씩 지어가는 것이 아닐까. 정성껏 풀어놓은 앙코르들을 감상하자니 내년의 조성진을 또 다른 설렘으로 기다리게 된다.

글 김주영 피아니스트 | 사진 최재우

〈생생화화生生化化〉-8 Artists Voyage 展

멈추지 않는 창작의 항해

경기도의 우수작가와 유망작가들의 최근작을 선보이는 경기도유망작가전 〈생생화화生生化化〉가 12월 20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성남문화재단이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2020년 경기예술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 22명을 선정, 그 최근작을 성남성남큐브미술관, 안산12월 8일 단원미술관, 파주12월 4일 화이트큐브 세 공간에서 공동기획전 형태로 선보이는 성과발표전이다. 이 전시가 경기도 내 미술관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이끌고,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경기예술창작지원사업은 그동안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과 성과 발표, 비평 연구의 창작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구축에 기여해왔다. 11월 6일부터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시작된 〈생생화화生生化化〉-8 Artists Voyage 전에서는 경기 지역 우수작가로 선정된 김은숙, 김우진, 김시하, 송민철 작가와 유망작가로 선정된 강지윤, 노경택, 조태광, 송수영 작가 등 총 8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중 김우진, 송수영 작가는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작가이기도 하다. 전시 주제인 '8 Artists Voyage-나를 찾아서 가는 길'은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외로운 창작자들의 여정을 배의 항해에 비유한다. 거칠고 험난한 환경을 헤치며 나아가는 작가들의 항해, 바다위를 깨끗하게 나아가는 현재진행형의 이야기가 마치 드넓은 바다처럼 경계가 구분되지 않은 전시 공간에서 펼쳐진다. 하나의 공통 주제 아래 작품을 준비해가는 전시가 아닌, 8인의 작가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한 공간에서 유니버스 형태로 보여주는 전시라는 점에서, 관람객들은 그 속에서 작가들의 각기 다른 예술적 향로

를 따라 색다른 항해를 함께하는 감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8인 8색, 창작의 여정을 함께하다

강지윤, 김시하, 김우진, 김은숙, 노경택, 조태광, 송수영, 송민철 8인의 작가들은 각자의 개성으로 자신만의 항해를 이어간다. 강지윤의 작품은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었던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인 〈애도의 태도〉로부터 출발하는데, 작가는 지나치게 밝아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상황의 연출 속에 보다 정형화된 사회적 태도를 담아내고자 한다.



1 강지윤, 〈애도의 태도〉, 2020, 9분 34초, 2채널 비디오

2 〈생생화화生生化化〉-8 Artists Voyage 전에서 관람객은 작가들의 각기 다른 예술적 향로를 따라 색다른 항해를 함께하게 된다

김시하는 설치 형식을 통해 꾸준히 보여주었던, 양분된 면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괴리를 이야기한다. 특히 한순간의 가십처럼 스쳐가는 사회적·환경적인 문제를 그저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닌, 사고(인식)와 태도로 보며 작가 특유의 연극적인 구성으로 다르게 바라본다. 김우진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주목했다. 작가는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든 다양한 우리 안의 장치들을 유추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관객이 현재를 낚설게 바라보고, 나아가 비판적으로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김은숙에게 '전시'란 '작가와 관람객이 작품과 제약 없는 관계 속에서 사고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이다. 작가는 함축된 삶의 경험을 바탕에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다. 노경택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시각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경계까지 도달하기 위한 작업을 펼친다. '자연'이라는 개념을 대표하는 여러 상징들 중 '식물'에 주목, 식물에 의한, 식물을 위한 가구를 제작하는 예술적 실험을 진행한다. 조태광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속에서 서로 생존 게임을 하듯 살

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송수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한계, 즉 늙고, 병에 걸리고, 색이 바래고, 낡고, 스러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진실을 직면하는 고통에 주목한다. 송민철은 기하 모형의 함축적 의미를 활용한 〈Square Moon〉 작업을 통해, 광장을 의미하는 사각형과 달을 소재로 구*의 중심을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8인의 작가들은 저마다 다른 향로로 바다를 향하지만, 결국 '스스로의 예술적 자아에 대한 발견'이라는 종착지는 동일하지도 모른다. 그래서 관객은 그들의 항해를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8인의 작가와 함께 떠나는 이번 전시가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들에게 작지만 큰 응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글 박동기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차장

〈생생화화生生化化〉-8 Artists Voyage 展
 일시 11월 6일~12월 20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142-5

성남아트센터 12월 공연 모음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위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힘들었던 2020년, 모두에게 쉽지 않았을 아픔과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음악이 주는 위안과 함께, 어쩌면 이 긴 어둠의 시간을 조금 더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Korean National Ballet

첫 순서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다. 해마다 12월이면 전 세계의 공연장을 장식하는 〈호두까기 인형〉은 과자 나라를 누비는 아기자기한 동화 속 이야기, 차이콥스키의 달콤하고 낭만적인 선율, 그리고 다채로운 춤이 환상적인 동화처럼 펼쳐지는 작품이다. 특히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볼쇼이 발레단을 30년 이상 이끌며 러시아 발레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버전으로, 전 세계 곳곳의 크리스마스를 수놓는 다양한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도 특히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구성이 돋보인다. 12월 3일(목)~5일(토) 오페라하우스,

보다 친근하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새로운 브랜드 콘서트 시리즈 〈오페라정원〉은 오페라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대 장치와 의상은 최소화해 진행되는 실속형 콘서트 오페라다. 올해를 장식하는 마지막 순서는 샤를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의 아리아 ‘꿈속에 살고 싶어Je veux vivre dans ce rêve’ 등 귀에 익은 아름다운 아리아가 가득한 작품이다.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하우스에서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원, 해설을 맡은 이정현 JTBC 앵커, 정상의 성악가들이 꾸미는 수준 높은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12월 12일(토) 17시 콘서트홀.

재즈 애호가들이 반가워할 소식도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운선의 콘서트가 12월 16일(수) 20시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온 나운선은 언제나 끊임없는 노력과 변신으로 사랑받아온 아티스트다. 그동안 어쿠스틱 악기와의 협연을 위주로 활동했던 나운선은 워너뮤직으로 이적 후 발매한 10집 앨범 〈Immersion〉에서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도 전자악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모듈러 신스와의 협연으로 즉흥성과 실험성이 더욱 돋보이는 확장된 사운드를 선보인다.

2020년의 마지막 마티네는 12월 17일(목) 11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서진, 첼리스트 안젤라 진영 박의 협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모차르트 〈돈 조반니〉 서곡을 시작으로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이어진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었던 올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뜨거웠던 작곡가의 예술이 2020년의 마티네를 감동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2



3



6



7



4



5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김선옥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으로 듀오 무대를 꾸민다. 한국 클래식의 살아 있는 역사로 세계 무대를 빛낸 '우리 시대의 거장' 정경화, 그리고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선옥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되는 무대다. 대한민국 클래식의 '어제'와 '오늘'이 세대를 뛰어넘어 빛어낼 눈부신 감동은 12월 20일(일) 17시 콘서트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찾아오는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지휘자 최수열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첼리스트 양성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다. 언제나 한결같은 지성과 품격의 첼리스트 양성원이 들려주는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리빙스턴/에반스의 캐럴 <실버 벨>, 미국의 작곡가 리로이 앤더슨Leroy Anderson이 친숙한 크리스마스 캐럴들을 메들리로 모아

2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피아니스트 김선옥과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으로 듀오 무대를 꾸민다

3 한국 클래식의 '오늘'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옥

4 마티네 콘서트의 진행자 김석훈

5 이정현 JTBC 앵커는 성남문화재단의 새 브랜드 콘서트 시리즈 <오페라정원>에서 매끄럽고 명쾌한 해설로 호응을 얻었다

6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10집 앨범 <Immersion>에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7 첼리스트 양성원은 지휘자 최수열,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관객을 만난다

작곡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크리스마스이브의 밤에 아름다운 반짝임을 더할 예정이다. 12월 24일(목) 20시 콘서트홀, 네이버 성남문화재단 채널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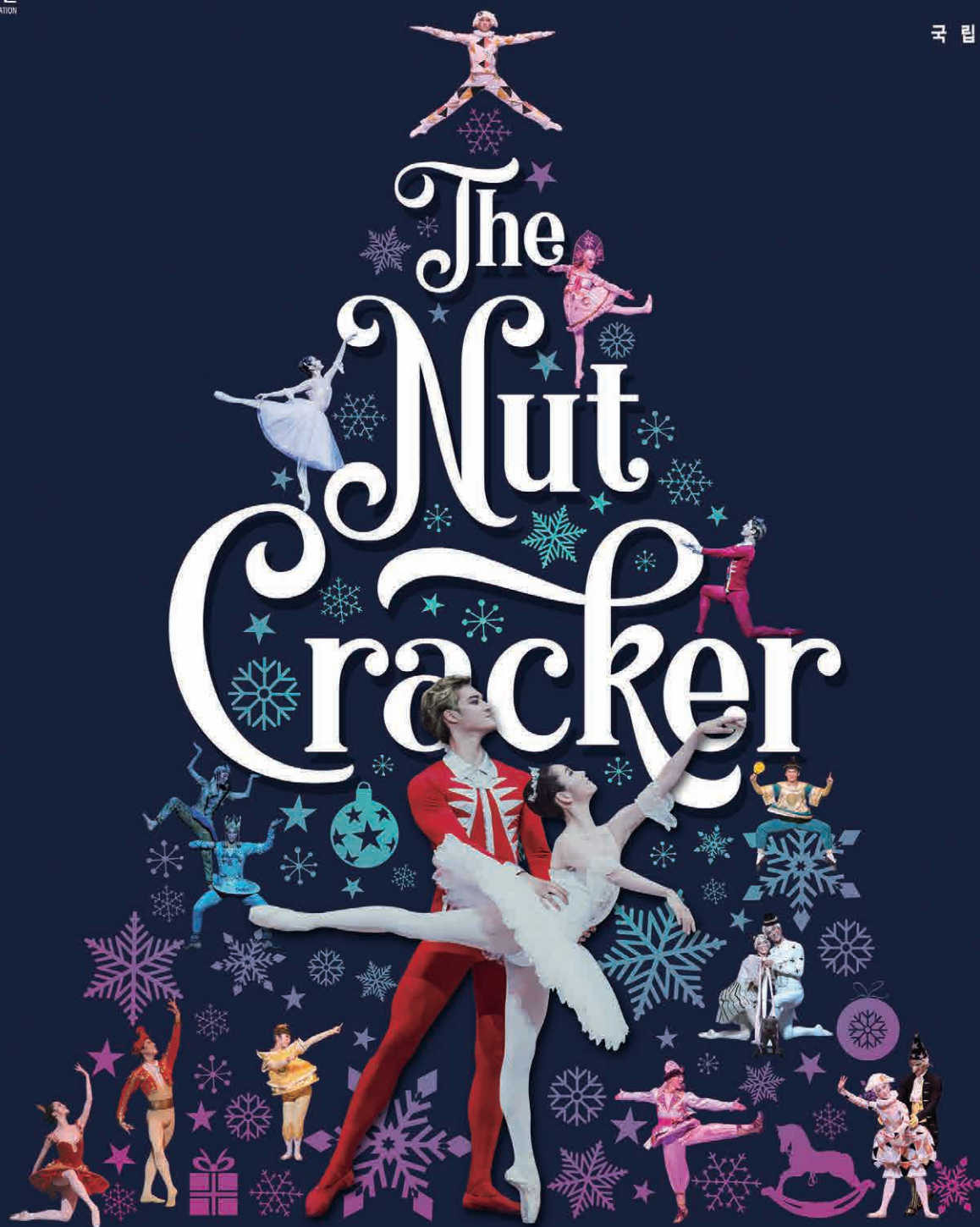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그룹 포레스텔라는 12월 31일(목) 19시 30분 오페라하우스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지난 4월 공개한 싱글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명 타이틀의 콘서트로 관객을 만나는 중이다. <포레스텔라 콘서트: Immersion>에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의 진정한 마무리는 해마다 성남아트센터의 12월 31일을 장식해온 송년음악회가 맡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원 풍선 날리기와 새해 카운트다운 등의 이벤트는 아쉽게 생략되지만, 최고의 연주자들이 꾸미는 풍성한 프로그램은 변함없다. 민정기가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지난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최연소 우승으로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감동을 전하고, 기타리스트 장하은과 소프라노 김유미, 테너 정의근, 벨레브 앙상블의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이어진다. 12월의 마지막 날, 콘서트홀에서 20시부터 진행되는 이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을 적용한 대면 공연뿐 아니라 성남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객석 한 자리 띄어 앉기' 및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호두까기인형

2020. 12. 3 Thu — 5 Sat Thu-Fri 19:30 Sat 15: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주최 (재)성남문화재단 문의 031-783-8000

36

이슈&트렌드
10대를 움직이는
'숏폼'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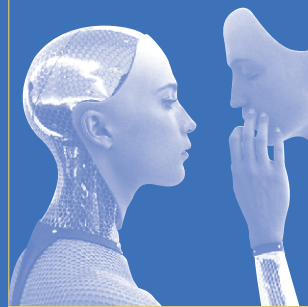
40

취향의 책장
빈센트 반 고흐의
모든 것



44

영화 속 클래식
(엑스 마키나)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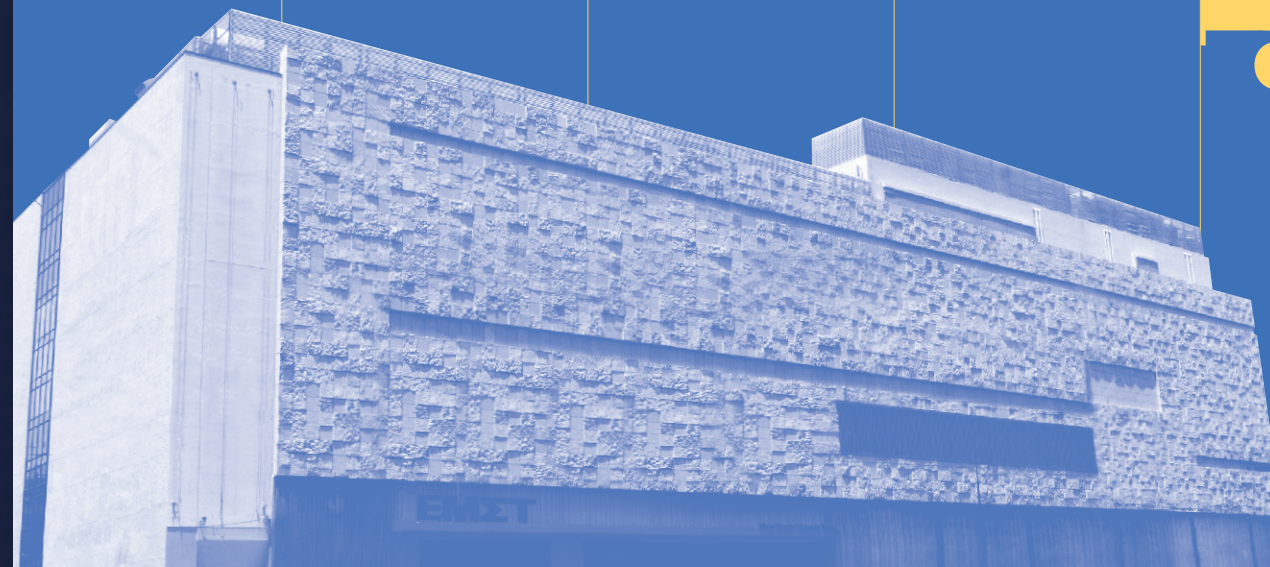
46

문학과 책
'책모임'에 관한 책

48

아트 시티를 가다
그리스 아테네

Art Curator



10대를 움직이는 '숏폼' 콘텐츠

20분만 넘어도 보기 지루하다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기적처럼 부활했다.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것도,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노출된 것도 아니었다. 어떤 영역에서는 TV, 라디오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만큼의 파급력을 갖게 된 '숏폼^{Short form}' 콘텐츠 덕분이었다. '숏폼'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20분 이내의 짧은 콘텐츠를 일컫는다.

인기 유튜브 콘텐츠 <네고왕>이 스킨푸드를 살렸다. <네고왕>은 길거리에서 만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회사 측에 직접 전달해 할인 행사 등을 '네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월 6일 '화장품왕 만나서 네고해왔습니다 [네고왕] Ep.11' 편이 공개된 직후 스킨푸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됐다. 정가가 얼마든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 행사를 연다는 소식에 주문이 밀려들면서, 일부 인기 제품은 한 달 이상 출고가 늦춰졌다. <네고왕>에 출연한 브랜드마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를 살릴 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 이 사례로 증명됐다.

숏폼 콘텐츠의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짧은 수록 짧은 콘텐츠 이용자들을 사로잡기 좋다는 점에

서 숏폼은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틱톡'처럼 15초에서 1분 정도쯤 되는 짧은 길이의 영상에 특화된 SNS 서비스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플레이리스트가 제작한 웹드라마 <에이틴A·TEEN> <에이틴2A·TEEN2> <트웬티 트웬티TWENTY-TWENTY> 시리즈는 연달아 회당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신예은·이나은·김동희·김우석 등을 10대들의 워너비로 부상시켰다.

새로운 플랫폼과 소비 성향

숏폼이 지금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소비자의 성향 변화, 그리고 그에 수반한 유튜브의 비약적 성장 덕분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60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전부 감상하기보다는 15~20분짜리 요약본으로 소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또한 제작 측면에서 숏폼은 TV 방송에 비해 적은 제작비와 인력으로 만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기획이 가능하며, 타깃 소비자를 세분해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TV 매체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시청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청자를 공략해야 하지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를 갖고 소비층을 탐색할 수 있다.

SBS 보도본부의 모바일 콘텐츠 브랜드 '스브스뉴스'



에서 시작한 <문명특급>을 보자.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언더문화에 깃발을 꽂으러 다니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 때문에 즐겨 듣지만 왠지 플레이리스트를 남에게 들리고 싶지는 않은 '숨어서 듣는 명곡' 같은 콘텐츠는 인터넷 문화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설정했고, 수년에 걸쳐 시청 대상을 넓혀가며 충성도 높은 구독자들을 확보했다. 최근 영화 <반도> <도굴> <서복> 등이 홍보 창구로 <문명특급>을 택한 것도 어떤 게스트가 나오든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를 보장하며 평균 조회 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웹드라마 <에이틴> <에이틴2> <트웬티 트웬티>는 제목에서부터 그들이 핵심적으로 공략하는 나이대가 드러난다. 그렇게 숏폼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부상하고, 새로운 플랫폼에 익숙해진 세대는 버릇처럼 이 플랫폼을 다시 찾으며, 알고리즘에 의해 새로운 방송을 추천받는 숏폼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방송사도 뛰어난 숏폼 시장

숏폼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은 카카오 같은 대형 기업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끔 이끌었다. 올해 9월 출범한 카카오TV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스타 예능 PD들이 제작하거나(JTBC 출신 오윤환 제작총괄, MBC 출신 박진경·해봄 PD 등), 영화 투자 배급사가 제작에 참여하거나(메리크리스마스의 <연애혁명>), 박보영·이효리 같은 스타들이 등장한다. 이들 역시 주 시청층



1, 2 유튜브의 인기 콘텐츠 <네고왕>

3, 4 <문명특급>의 '숨어서 듣는 명곡'은 TV로 방영될 만큼 화제를 모으고 있다

5 웹예능 콘텐츠 <와썹맨2>

은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했다. 가령 <연애혁명>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직 낯서른>은 30대 부근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다. TV 방송국에서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JTBC의 자회사 '스튜디오 룰루랄라'는 <워크맨>과 <와썹맨>을 성공시켰고, tvN의 나영석 PD 사단은 웹 예능 채널 '채널 심오야'를 개설해 <신서유기 외전: 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끼>와 <라까남>을 선보였다. 다만 대자본이 투입된 콘텐츠의 수익 모델에 대한 우려도 있다. 새로운 플랫폼과 콘텐츠의 광고 규모가 아직 기존 TV 광고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인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 효과가 엄청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투입돼 스타 캐스팅을 내세운 콘텐츠는 비용을 회수하기 만만치 않다. MBC나 JTBC, tvN에서 TV 예능의 외전에 해당하는 숏폼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수익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시도를 하고 팬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가깝다.





신선한 기획과 리스크 사이

브랜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의 광고가 소비자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제작자가 감안해야 할 문제다.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구독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만큼 노골적인 광고에 대한 보는 이의 거부감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더한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 걸어 다니는 1인 기업이 된 크리에이터들도 조회 수에 따른 이윤보다는 건당 광고비를 받는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상당수의 유튜버가 '뒷광고' 논란에 휘말려 구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해외 시장에서는 스티븐 스피버그 등이 참여해 화제를 모은 유료 숏폼 플랫폼 쿼비(Quibi)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숏폼 콘텐츠의 성패는 제작진의 이름값이 아니라 얼마나 플랫폼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만드느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출자와 출연진의 이름값에 기대지 않고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그만큼 신선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취약할 때가 있다. 2020년 가장 뜨거운 웹예능이었던 <가짜 사나이>는 유튜브 피지컬갤러리 채널에서 시작된, 인터넷 방송인들이 기획해 소위 대박을 터뜨린 콘텐츠였다. 하지만 출연진들의 과거 범죄 이력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제작진은 채널 내 영상 게시를 중단하고 그간 업데이트된 모든 콘텐츠를 비공개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가짜 사나이>가 카카오TV, 왓츠 등과 제

6 웹드라마 <에이틴>의 출연자들은 10대들의 이상으로 떠올랐다

7, 8 <에이틴> 시리즈의 제작사 플레이리스트는 인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한 상품으로 수익 다변화를 시도한다

9 <신서유기 외전: 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끼>



휴를 맺고 일부 출연진들이 광고 모델로까지 출연하기 시작한 이후 불거진 사건이었다.

숏폼, 새로운 판을 짜다

숏폼 시장은 카메라와 편집 툴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 뛰어들 수 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은 낮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대자본과 제작 역량을 가진 베테랑들까지 판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숏폼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시간을 덜 들이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다. 콘텐츠의 특성상 시청자들은 30초쯤 보다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언제든지 페이지에서 이탈할 수 있다. 웹툰이나 웹소설, 모바일 게임처럼 여가 생활을 즐길 대안도 무궁하다. ASMR처럼 편안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숏폼 콘텐츠는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많은 유튜브 콘텐츠가 실 새 없이 자막을 넣고 10초에 한 번씩 시청자를 웃길 수 있게끔 유머를 시도하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웃기는 게 전부가 아니다. <가짜 사나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출연진 검증 같은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플랫폼 자체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도 뜨겁다. 앞서 언급한 카카오TV의 사례처럼 스타 PD와 작가, 배우들을 총동원해 오리지널 시리즈를 승부수로 내놓거나, 필요에 의해 경쟁사끼리 서로 제휴하기도 한

다. 최근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합작 OTT 플랫폼 웨이브는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 <연애혁명> <아만자> <며느라기> <아직 낯서른>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확장도 요구된다. 웹드라마 제작사 플레이리스트는 <에이틴> 같은 자사 인기 콘텐츠 IP를 확장한 MD 상품을 판매하고 <연애플레이리스트> 세계관을 확장한 TV 드라마 <디어 엠(Dear M)>을 제작하며 하나의 콘텐츠를 다각도로 활용한다.

성공한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국 웹툰과 웹소설 수출 시장이 활발해진 것처럼, 프로덕션의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고 소통이 유연한 숏폼 역시 더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더군다나 웹툰과 웹소설의 흥味が 10~20분 분량의 숏폼과 유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원천 스토리를 누가 먼저 발견하고 판권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숏폼 열풍의 의미는 단지 TV 중심의 미디어 시장에 균열을 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하면서 새롭게 짜 나갈 판을 지켜볼 때다.

10 10대의 로맨스를 발랄하게 그린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11 웨이브가 카카오TV와 제휴해 제공하는 웹드라마 시리즈 중 하나. 카카오TV 외의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단독 제공해 화제를 모았다

12 암환자의 투병과 판타지 세계 모험을 그린 동영 웹툰이 원작이다

글 임수연 <씨네21> 기자
영화를 비롯해 대중문화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글을 써왔다. 웹진 <아이즈>를 거쳐 2017년부터 <씨네21> 기자로 일하고 있다.
사진 제공 SBS, 플레이리스트, 스튜디오물루랄라, tvN, 카카오TV

빈센트 반 고흐의 모든 것

대중 문화가 끝없이 사랑하고 추억하는 화가

하나의 삶, 하나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은 수없이 변주되면서도 중심이 되는 '캐릭터'를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강렬하고 유명하다. 1890년 7월 29일 사망, 세상을 떠난 지 130년이 지났지만 빈센트 반 고흐라는 예술가는 대중문화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언급된다.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뮤지컬, 영화, 에세이를 가릴 것 없이 더욱 다양해지고 풍성해진 채로.

"사람들은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편지 전시를 보려고 세 시간 반 줄을 선다. 고흐는 19세기의 커트 코베인이다."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의 공동 감독 휴 웰치먼의 이 말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가 현재성을 지닌 창작자로 여전한 대중성을 갖추었음을 웅변한다. 고흐라는 성뿐 아니라 빈센트라는 이름만으로도 친근하게 불리는 화가의 삶은 그가 남긴 많은 편지(특히 동생들과 주고받은 것이 대다수다)와 강렬한 색채의 그림들 덕분에 여전히 모두에게 생생하고 인상적이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은 '비운의 천재'를 상징한다. 현대의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고흐의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것은, 재능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지켜가려는 외로운 작가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데, 그 작품을 창작한 이는 정작 외면당했다. 그러니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일 때도 있고, 죽은 뒤에야 재능을 알아보고 화가 자신이 살아생전 만져보지 못한 돈으로 그림을 거래하는 데 대한 분노를 담을 때도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찬탄일 때도 있다.

동생 테오 반 고흐 Theo Van Gogh, 1857-1891 역시 그러한 재창

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껏 내 인생엔 행운과 불운 모두 깃들었지. 불운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건, 기꺼이 손 내밀어 붙들자고."(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서) 죽은 뒤에야 재능을 널리 인정받은 형, 그 형이 빈곤 속에서 붓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힘을 보탠 동생.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후에도 멈추지 않은 채 꾸준히 책이 되고 영화가 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빈센트 반 고흐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테오는 창작자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형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르듯 세상을 떠난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주 이야기된다. 창작자를 신뢰하는 마지막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팔리지 않는 그림을 받고 생활비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상적인 후원자를 그리기 위해. 2014년에 초연되어 2019년까지 무대를 이어간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빈센트 반 고흐와 테오 반 고흐를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한다.

모두가 아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돈 맥클린의 '빈센트' 1971라는 곡은 마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 1889을 노래로 옮긴 듯하다. 한여름의 푸른 밤하늘을 그린 붓 터치 속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삶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던 빈센트 반 고흐를 애정 어린 목소리로 그리워한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림의 붓 터치가 연상되는 일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고흐의 그림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인상파 화가 중 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그림이 수없이 복제되고 또 복제되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미술관에서 직접 그림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복제품을 통해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들을 꾸준히 접해왔다.

도로타 코비엘라와 휴 웰치먼 두 감독이 연출한 애니

1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 작 <자화상>

2, 5 <러빙 빈센트>의 제작 과정

3 화가들이 참여해 제작한 <러빙 빈센트>의 스틸 컷

4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 작 <별이 빛나는 밤>



메이션 <러빙 빈센트>2017는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을 본뜬 유화를 초당 12장씩 그려 완성한 작품이다. 빈센트 반 고흐가 정말 자살했는지를 질문하는 미스터리 구성의 영화인데, 정작 그 질문에 선명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 지장은 없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빈센트 반 고흐의 유화 붓 터치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마치 '그림을 영화로 경험'하는 듯한 애니메이션 효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제작 기간이 총 10년으로, 107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62,450점의 유화 프레임으로 완성했다는 이 작품에는 <밤의 카페테라스>1888 <별이 빛나는 밤에>1889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1888년경 <자화상>1889 등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130여 점이 사용됐다. 시얼사 로넌, 더글러스 부스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를 촬영한 뒤 화가들이 다시 유화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그래서 꿈틀거리는 붓 터치가 시종일관 느껴진다. 극장에서 볼 때에는 다소 멀미를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빈센트 반 고흐의 내면과 그의 작품 그 자체를 경험하는 효과를 주는 데 성공했다. 바바라 스톡의 그래픽노블 『반 고흐』2012와 『반 고흐와 나』2016는 제목 그대로 한 권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다른 한 권에는 『반 고흐』를 그리면서 바뀐 작가 자신의 삶을 담았다. 『반 고흐』는 빈센트 반 고흐가 아들과 오베르에서 보낸 시기를 담았는데, 화풍은 바바라 스톡의 스타일로 하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처럼 생생한 색채의 특징을 살렸다. 빈센트 반 고흐는 춤고 우울한 파리에서 벗어나 프로방스 지방

의 따뜻한 도시 아를에 머문다. 하지만 생활고는 여전히, 함께 '예술가의 집'을 마련하리라 여겼던 화가 폴 고갱과 갈등을 빚으며 정신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진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손으로 귀를 베어버리지만, 동생 테오는 변함없이 형을 지원한다. 두 시간 만에 그림 한 점을 완성할 정도로 작업 속도가 빨랐던 빈센트 반 고흐가 아를에서 그린 작품들이 등장한다. <추수>1888 <씨를 뿌리는 사람>1888 <해바라기>1887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 등이 그 작품들인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 삶의 가장 비극적인 날에 그려졌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반 고흐』가 1만 부 판매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은 뒤의 이야기가 『반 고흐와 나』인데, 프리랜서로 사는 삶에 대한 소회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상념과 연결되어 펼쳐진다. "나는 빈센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적절한 생각과 함께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빈센트는 가난하고 비극적인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편지 안에서는 그것들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가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진짜 자기 사진이 되었다. 그런 점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그의 실제 모습을 그리고 싶지만, 회화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비운의 천재가 소통한 세상

『빈센트가 사랑한 책』2020은 빈센트 반 고흐의 독서가로서의 면모에 집중한다. 그가 주고받은 편지들에서 어떤 책들이 언급되는지, 독서가 그의 예술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핀다. "가족의 편지를 보면, 그들이 저녁마다 한자리에 모여서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들은 성경에서부터 시와 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싶은 편지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렇게 친밀하게 시간을 보낸 덕에 가족의 유대가 아주 단단했다. 1874년에 아버지 테오도루스는 테오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 저녁에 자주 소리 내어 책을 읽는다. 지금은 불위의 『케넬를 칠링리』를 읽고 있어. 아름다운 문장이 아주 많구나.' 빈센트 반 고흐는 편지에서 자신이 좋아한 작가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찰스 디킨스, 에밀 졸라, 빅토르 위

고, 오노레 드 발자크 등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업은 그를 둘러싼 자연과의 소통인 동시에 책과의 소통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2018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윌럼 데포가 연기하는 빈센트 반 고흐는 작은 카페에서 미술 작품을 전시하다 갑작스런 중단 통보를 받는다. 함께 하자고 했던 다른 화가들의 변심 때문에 벌어진 일로, 심지어 관객들조차 외면한 전시에 딱 한 명의 관객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폴 고갱(오스카 아이작). 그렇게 시작된 둘의 인연은 이후 아를에서 우정과 갈등으로 번진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을 옮겨놓은 듯 닮은 윌럼 데포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영화든 뮤지컬이든 소설이든 창작자들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을 들려준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보는 것일 테고, 그 다음으로는 서간집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1999라는 제목의 서간집이 2권으로 출간되었는데, 서간집을 읽다 보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예술가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의 글은 그림처럼 격렬하고 생동감이 있다. 그가 오래 살아서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살아서 명성을 누리고, 동생 테오와 그 영광을 기쁘게 나누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만든다.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편지들은 그에 대한 모든 창작물의 근간을 이루는데, 읽다 보면 누구라도 나서서 더 이야기로 만들고 더 빈센트 반 고흐를 기리고 싶어질 정도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어쩌면 내 그림의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 6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을 다룬 영화 <러빙 빈센트>
- 7 윌럼 데포의 명연기가 펼쳐진 <고흐, 영원의 문에서>
- 8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모은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반 고흐의 편지들은 후대의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 9 독서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책 『빈센트가 사랑한 책』
- 10 스토리와 이미지를 함께 감상하는 그래픽노블 『반 고흐』

글 이다혜 북칼럼니스트, <씨네21> 기자
글쓰기·라디오·팟캐스트 등을 통해 영화와 책을 소개하고 여성의 권리와 삶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다. 『출근길의 주문』, 『아무튼, 스텔러』를 비롯해 다수의 책을 썼고, 네이버 오디오북 '이수정·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EBS라디오 '이다혜의 21세기 씨네피क्स'를 진행하고 있다.



<엑스 마키나>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그리고 인공 지능으로

“자네, 튜링 테스트^{Turing Test}가 뭐지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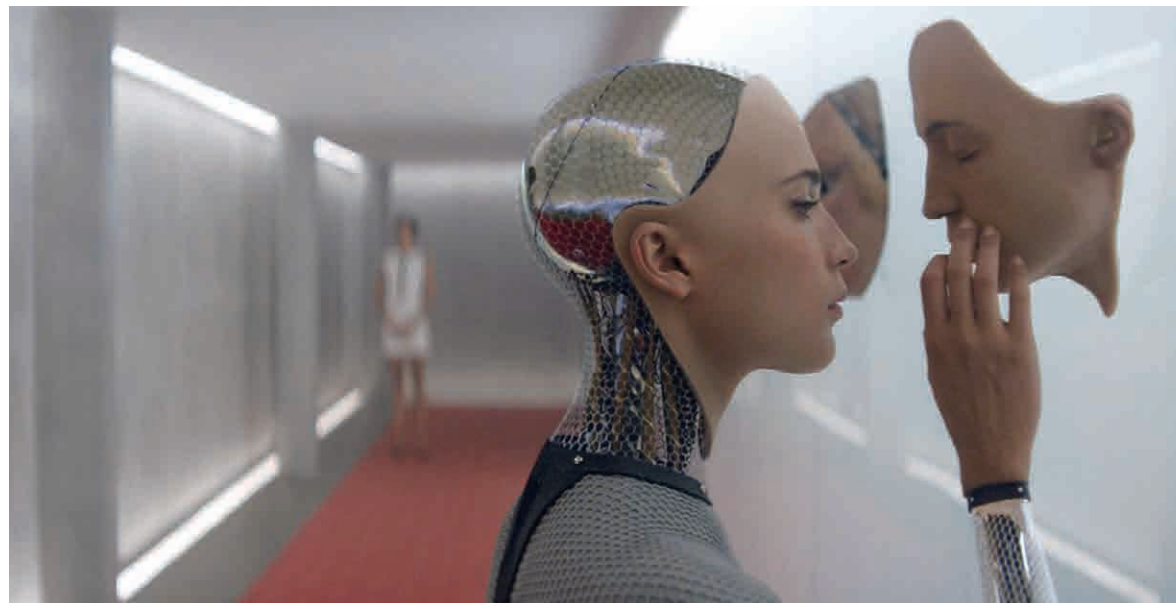
검색 엔진 회사의 사장인 네이든(오스카 아이작)이 직원 케일럽(도널 글리슨)에게 묻는다. 2014년 영화 <엑스 마키나^{Ex Machina}>의 첫 장면이다.



Pablo Casals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케일럽이 정답을 모를 리 없다. ‘튜링 테스트’는 영국 과학자인 앨런 튜링¹⁹¹²⁻¹⁹⁵⁴이 1950년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가설이다. 비대면 상태에서 평가자가 인간과 컴퓨터의 답변을 받아본 뒤에도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컴퓨터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다. 컴퓨터가 인간과 흡사하게 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미테이션 게임^{imitation game}’으로 불린다. 영화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케일럽은 문득 인공 지능을 개발 중인지 묻는다. 네이든은 “이미 개발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답한다. 케일럽은 세상에 나온 인공 지능의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평가자로 초대받은 것이다. 사장은 “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자네 인류 역사를 바꿀 과학적 쾌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는 칭찬도 빼놓지 않는다. 영화 제목인 엑스 마키나는 ‘기계로부터 나온 신’이나 ‘기계로 만든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라는 라틴어 문구에서 나온 말이다.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숙명이나 난제에 가로막혀서 찢쩍대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신을 의미한다. 본래 이 용어는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 같은 고대 그리스 극작가의 연극에서 연원했다. 그리스 고전 비극에서 탄생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바로크 오페라를 거쳐서 모차르트의 중기 오페라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781년 모차르트

의 오페라 <이도메네오>에서도 바다의 신 넵툰의 음성이 들리는 마지막 3막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연극 무대에서 자취를 감춘 듯했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20세기 스크린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력의 범위가 우주까지 확장되면서 탄생한 공상 과학^{sf} 장르가 대표적이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SF 영화를 통해서 인공 지능^{ai}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다만 이번에는 곤경에 빠진 인간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지능을 겨루고 함정에 빠뜨리는 악마성을 지닌 존재로 거듭났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묵시론적 걸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했던 인공 지능 컴퓨터 ‘할 9000’이 대표적이다. 영화에서 ‘할 9000’은 입술 모양만으로 인간의 대화를 해독한 뒤, 인간을 어두컴컴한 우주로 추방해버린다. 고전 연극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신이 보내준 기계였다면, 현대 영화에서는 스스로 신이 된 기계에 가깝다고 할까. 영화에서 케일럽은 사장의 집에 도착한 뒤 기나긴 첫날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 들리는 모닝콜 음악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가운데 첫 곡인 프렐류드^{Prelude}다. 정확한 작곡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흐가 쾨텐 궁정 악장으로 재직했던



1717~23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바흐의 적지 않은 작품처럼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역시 재발견된 곡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¹⁸⁷⁶⁻¹⁹⁷³는 13세 때 고서점에서 이 모음곡의 악보를 발견한 뒤 12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했다. 그는 훗날 “지금도 그 악보의 표지를 보면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먼지투성이의 오래된 가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악보가 왕관의 보석이거나 한 것처럼 단단히 움켜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물론 바흐의 모음곡은 이전에도 악보로 출판됐고, 부분적으로는 간간이 연주됐다. 하지만 이전까지 연습곡 정도로만 인식됐던 모음곡 전곡이 첼리스트에게는 거대한 우주이자 일용할 양식과 같다고 역설한 주인공은 카살스였다. 그는 25세 때 처음으로 모음곡 가운데 한 곡을 음악회에서 연주한 이후 꾸준하게 작품을 연주했다. 모음곡 전곡을 녹음한 건 예순이 된 1936년에 이르러서였다. 영국 음악학자 윌프리드 멜러스의 말처럼 “악기 하나로 연주하는 단선율의 음악 속에서 인간은 신의 춤을 창조했다”는 경지로 격상된 것이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인간의 손으로 빛어낸 ‘신의 춤’과도 같았다.

엑스 마키나

엑스 마키나²⁰¹⁴
감독 알렉스 가랜드
출연 도널 글리슨,
알리시아 비칸테르 외

튜링은 인간보다 빠른 인공 지능의 존재를 가정했다는 점에서는 급진적이었으나, 테스트의 평가자는 여전히 인간일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점에서는 다분히 20세기적이었다. 하지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후의 SF 영화들은 튜링의 가정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엑스 마키나>도 마찬가지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인공 지능 에이바가 묻고 인간인 케일럽이 답하는 식으로 질문과 대답의 주체도 역전된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위치가 뒤바뀌고, 인간은 기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조물주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섬뜩한 암시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튜링 테스트의 확장이자 반전이기도 했다. 이성적인 추론을 넘어서는 미지의 영역까지 꿈꿀 수 있다는 점은 영화적 상상력의 미덕이다. 하지만 그 상상력이 인류의 암울한 미래까지 함께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앞으로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일까, 실험실의 쥐가 된 것은 과연 누구일까.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오늘의 클래식』 『모차르트』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 최근작 『바이블 클래식』에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종교음악을 소개한다. 저술 외에 다양한 강연과 해설 활동은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책모임’에 관한 책

그 책, 책모임만큼이나 재미있다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독서모임이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독서동아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독서모임 개수만 약 5,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지인들끼리 꾸리는 작은 모임에서부터 철저한 회원 관리가 이뤄지는 유료 모임까지 다양하다. 책모임, 독서모임, 독서동아리, 북클럽 등 부르는 이름도 각각각색이다. 이런 책모임이 나아가 책 그 자체가 됐다. 책모임 베테랑의 운영 팁에서부터 좌충우돌 책모임 성장기, 함께 읽은 책 목록까지. 최근 출간된, 책모임만큼이나 재미있는 책모임에 관한 책들을 모아봤다.



책모임 베테랑들의 비법 공개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는 싶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베테랑들의 안내서부터 우선 읽어보자. 권인걸의 『이 책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우리의 대화)와 김민영의 『나는 오늘도 책모임에 간다』(북바이북), 원하나의 『독서모임 꾸리는 법』(유유)은 각각 책모임 운영자인 저자들이 책모임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과 원칙, 비법을 공개한 책이다.

『이 책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는 북엔터테이너, 독서문화 기획자 등으로 일해온 저자가 지난 5년간 여러 기관에서 1,000회 이상의 독서모임을 진행하며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시작은 한 권의 책이지만 개인 고민부터 사회 담론까지 다양한 주제로 연결되는 대화의 경험이 책모임의 자신임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저자가 지난 5년간 책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 목록이 부록으로 실려 있어 각자 책모임의 길라잡이로 삼기에도 좋은 책이다.

『나는 오늘도 책모임에 간다』는 『이젠, 함께 읽기다』 『서평 글쓰기 특강』 『질문하는 독서의 힘』 등 다수의 독서 관련서를 써온 저자가 ‘책과 사람’을 주제로 쓴 첫 에세이다. 15년간 운영해온 책모임의 주제를 ‘책’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된 과정과 저자의 생각이 담담하게 적혔다. 여기에 신상 묻지 않기, 독서 토론에서 필요한 질문들,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운영법 등 15년차 책모임 운영자의 꿀팁들도 함께 실려 있다.

『독서모임 꾸리는 법』은 독서모임 ‘하나의책’ 기획자이자 운영자인 원하나 대표가 300여 명의 회원과 함께한 200회의 책모임을 돌아본 책이다. 책모임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경험이 없는 이들이나, 책모임을 꾸리긴 했는데 좌충우돌 헤매는 중인 책모임 초심자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담았다. ‘첫 모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책 읽을 예닐곱 명이 모이기



적합한 장소는?’ 등 질문으로 구성된 목차들만 훑어봐도 책모임에 관한 각종 궁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쓴 책모임 기록 일지

아무리 베테랑 운영자가 진두지휘한다 해도, 성실하고 열띤 독서자들이 함께할 때에만 책모임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책과 바람나다』(미다스북스), 『모두의 독서모임』(하나의책), 『모두의 독서』(하나의책)는 책모임을 함께 꾸린 이들이 책모임의 성장 과정을 공동으로 적어 내려간 기록 일지다.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주부들이 모여 시작한 광진정보도서관 독서회2반은 7년간 책모임을 지속했고, 9년째 되던 해 철학 스터디 모임 ‘책바람’을 만들었다. 나아가 협동조합을 꾸리고 ‘공간 책바람’이라는 카페까지 만든다. 『책과 바람나다』는 도서관을 뒤흔쳐온 한 독서 동아리가 독립하고, 꾸러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각 개인에게 이 모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책모임을 운영하며 모은 자료들이 하나의 역사가 되어 책에 담겼다.

『모두의 독서모임』과 『모두의 독서』는 앞에 소개한 책모임 겸 출판사인 ‘하나의책’에서 펴낸 책이다. 2014년 1인 출판사였던 하나의책은 작은 독서모임을 만들었다. 3~4명의 회원이 모여 가볍게 책에 관해 수다를 나누던 모임은 철학 모임, 문학 모임 등으로

- 1,000회 이상 독서모임을 진행한 경험을 풀어낸 책이다
- 『나는 오늘도 책모임에 간다』의 저자는 책모임의 주제를 책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된 배경을 담담하게 적어갔다
- 『독서모임 꾸리는 법』은 제목 그대로 책모임에 필요한 실용 정보를 담았다
- 도서관에서 출발한 독서동아리의 이야기이다
- 독서모임이 많아지는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다
- 다양한 직종의 독서모임 참여자들이 책과 독서, 모임에 대한 생각을 써내려갔다
- 여성이 주인공인 명작을 여성의 눈으로 읽고 쓴 서평집이다

글 한소범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국문학과 영상을 전공하고 한국일보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 문학과 문화 전반에 관한 기사를 쓴다.

확장됐다. 회원들의 독후감, 독서모임 후기, 독서 기록 등을 한데 모으자 두툼해졌고 이 기록이 그대로 책이 됐다. 여기에 각자 독서모임 참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독서모임 에티켓’도 실었다. ‘출판계는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인데 독서모임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책이다.

우리가 책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들

호스트도, 참가자도 이 ‘주인공’ 앞에서는 조언에 불과하다. 책모임의 핵심, 바로 ‘책’이다. 때문에 책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만 성실히 소개해도 이미 한 권의 책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오랫동안 책읽기와 글쓰기를 삶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의 독서클럽 ‘광화문소설클럽’은 여성이 주인공인 고전을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었다. 최근 출간된 광화문소설클럽 리뷰집 『여성을 비추는 열 개의 거울』(책톡edisco)은 ‘가부장제 속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두 시즌 동안 함께 읽은 책에 대한 서평만을 모은 책이다.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부터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까지, 총 10편의 고전을 페미니즘 시각으로 새롭게 읽어냈다.

그리스 아테네

찬란한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도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Athens는 서양 문화예술의 뿌리이자 고향이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유럽 경제 위기와 난민 문제의 중심에서 고통받는 도시이기도 했다. 유럽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일찍 근대화를 이루지도 못했고, 부강하지도 못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없이 농업과 관광에 의지해 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낙오자 같은 이미지였다. 그랬던 아테네가 달라지고 있다. 대규모 국립 미술관과 신생 미술관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유럽 문화예술의 뿌리, 아테네

아테네는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도시이자 유럽 문화예술의 고향이다. 아테네에서 절정을 이룬 그리스 문명은 로마 시대와 중세 유럽을 거쳐 근대 유럽 국가로 이어졌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가 남긴 문화예술의 결정체로 서구 건축의 원형이다. 아테네는 또한 서양 철학과 학문이 태어난 도시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다진 이들이 죄다 이 도시를 무대로 활동했다. 이 밖에도 최초의 민주주의 도시 국가,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 등 아테네를 수식하는 단어는 정말 많다. 한마디로 아테네는 유럽 문화예술의 뿌리인 셈이다. 이렇게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녔음에도 그리스는 부유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21세기에 들어서선 오래된 무역 적자와 정책 실효으로 유럽의 뜨거운 감자로 불렸다. 2001년 무리한 유로존 가입,

1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2004년 하계 올림픽 적자, 2009년 국가 부도 위기 등을 겪으며, 유럽 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거기다 연일 치솟는 물가, 부유층의 탈세와 부정부패,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등에 대한 분노로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2017년에 어느 정도 경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무렵,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현대미술 전시회인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가 이 도시에서 열렸다. 물론 독일 카셀과 동시 개최였고 독일이 전시 비용을 부담했지만, 유럽 문명의 뿌리이면서 경제 위기와 난민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아테네에서 전위적인 현대미술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화제가 됐다. 그해 카셀과 아테네 두 도시를 찾은 전시 관람객은 역대 도큐멘타 최다인 123만 명을 기록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아테네는 이제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옛 영광을 되찾

으려 하고 있다. 고대 문화와 현대미술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첨단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개관에 이어, 2020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설립 20년 만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전면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아테네는 고대 유물의 도시를 넘어 현대미술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21세기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기 위해 비상을 준비 중이다.

고대 유적 위에 들어선 첨단의 박물관,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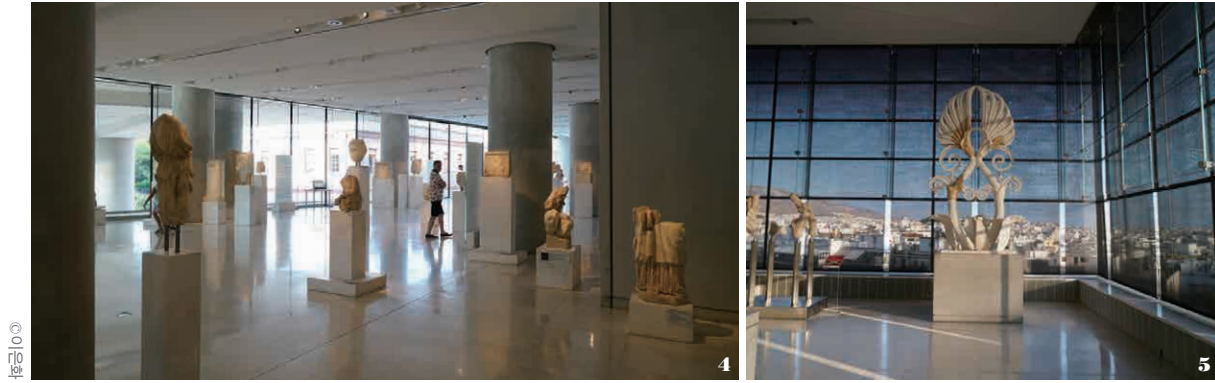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테네는 땅만 파면 고대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 해서 지하철 라인 하나 넓히는 데도 10년 이상이 걸리곤 한다. 지난 11월에도 하수구 공사 중 기원전 3~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헤르메스 흉상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상황이 이러니 도심에 대형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서 깊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근처에 2009년 대형 아크로폴리스 뮤지엄(Acropolis Museum)이 새로 들어섰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으로, 파르테논 신전에서 불과 28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는 지난 150년 동안 아테네 고대 유적지 근처에 세워진 건물들 중 가장 큰 현대식 건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 파르테논 신전 가까이 세워진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전경
3 밤이 되어 불을 밝힌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사실 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도는 1970년대부터 총 네 번이나 있었다.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이 제안되었지만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고 새 뮤지엄을 건립하는 건 불가능했다. 적당한 부지 확보도 문제였지만 어렵게 확보한 땅도 기초 공사를 위해 파기만 하면 유물이 나오니 계획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유적지를 건드리지 않고 지면에 기둥들을 세운 후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였다. 현재의 박물관 디자인은 이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네 번째 설계 공모의 우승작이다. 건축은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와 그리스 건축가 미하엘 포티아디스(Michael Photiadis)가 공동 설계했다. 건물이 기둥들 위에 떠 있지만 리히터 규모 1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어졌다.





©이은화

아크로폴리스의 조각들을 품은 파르테논 홀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발아래 고스란히 노출된 고대 유적들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총 4층 높이의 박물관은 불규칙한 사다리꼴 모양과 직사각형의 층들이 쌓아올려진 모습이다. 건물 내부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처럼 경사져 있는데, 3개 층에 전시된 소장품들을 보고 나면 맨 위층인 '파르테논 홀'에 오르게 된다. 4면이 유리로 마감돼 있어 자연광이 들어오는 밝은

직사각형 전시장이다. 실제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와 기둥 배열 등을 재현해 만든 전시장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면 언덕 위 파르테논 신전을 조망할 수 있다.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카페에서도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볼 수 있다. 파르테논 홀에는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과 프리즈를 장식했던 대리석 조각상들이 관람객 눈높이 위치에 전시되어 있다. 에레크테이온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여신상 형태의 기둥 진품들과 파르테논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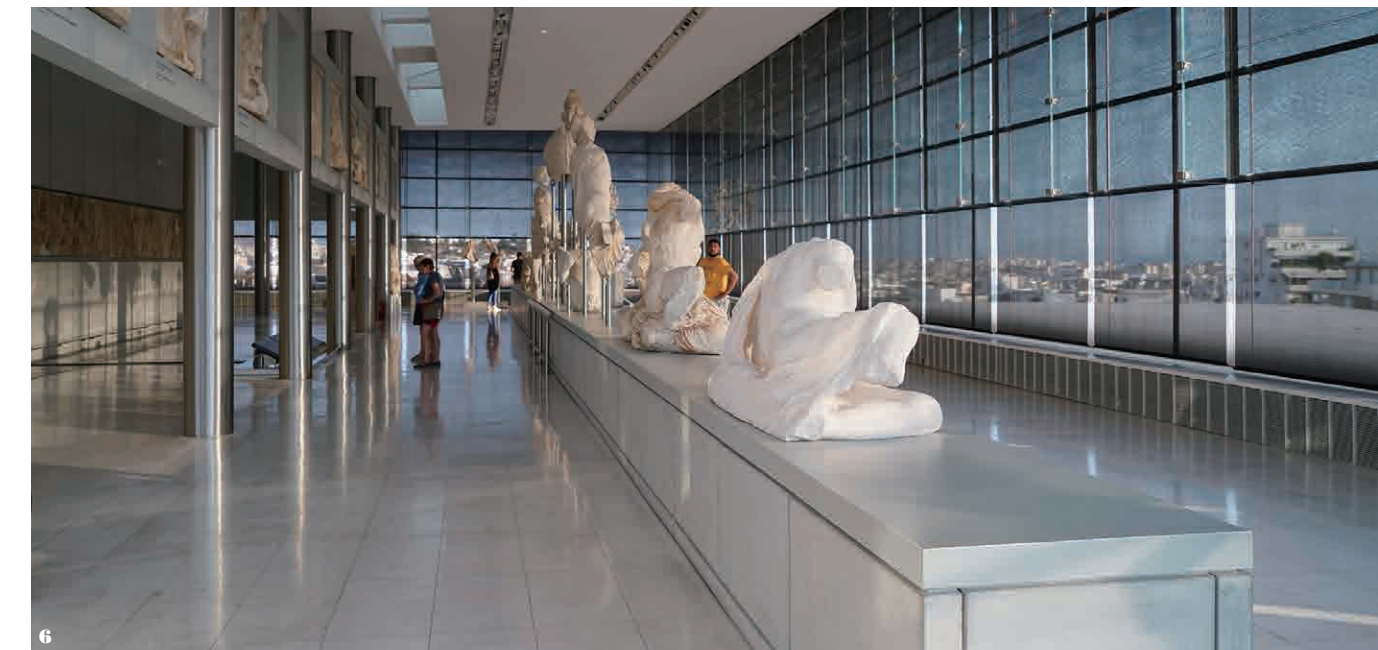
의 복원 모형도, 고대 아테네가 동맹국들과 맺은 각종 조약을 새겨놓은 표지판 등도 관객의 시선을 끈다. 박물관 내부를 관람하다 보면 역사적인 전시품들과 달리 건축물 자체는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의 첨단 건축이란 생각이 든다. 새 박물관이 전통적인 그리스 양식이 아니라 현대적인 모습으로 지어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19세기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지어진 첫 박물관이 너무 협소한데다 노후해 현대식 새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이유는 런던 대영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엘긴 마블(Elgin Marbles)' 때문이다. 엘긴 마블은 19세기 초 영국 외교관 토머스 엘긴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 간 대리석 조각상들이다. 엘긴은 식민지의 영국 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10년 동안 무려 250점이 넘는 신전 조각들을 영국으로 가져갔다. 어이없게도 자신의 저택을 꾸미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파산 위기를 맞은 그가 영국 정부에 이 조각들을 매각하면서 대영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다. 그리스 정부는 엘긴이 조각을 취득한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영국은 유물을 제대로 관리할 최신 시설을 갖춘 장소가 그리스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

- 4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내부
- 5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맨 위층 파르테논 홀. 파르테논 신전을 재현해 만들었다
- 6 파르테논 홀에는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과 프리즈를 장식했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 7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미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아테네 국립현대미술관

했었다. 그리스가 첨단 시설을 갖춘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을 새로 건립하면서 영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지만, 21세기 문화 전쟁으로까지 갈 뻔했던 엘긴 마블의 반환 문제는 여전히 양국이 풀어야 할 불편한 숙제로 남아 있다.

현대미술을 향한 도전, 아테네 국립현대미술관

고대 유물을 품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첨단 건축 기술로 새로 지어졌지만, 첨단의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아테네 국립현대미술관(EMS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thens)은 오히려 옛 산업시설 속에 자리했다. 미술관이 들어선 건물은 1961년 완공된 옛 픽스픽 양조장 건물이다. 창문이 거의 없는 심플하고 육중한 입방체 건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리스 건축가 타키스 제네토스(Takis Zenetos)가 디자인했다. 'EMST'로 불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곳에 처음 들어선 것은 새천년이 시작된 서기 2000년으로, 첫 3년간은 양조장 건물 1층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건물 복원 공사를 위해 장기간 문을 닫았다가 2015년 사무와 행정 서비스 시설부터 먼저 입주했다. 이듬해엔 전시장들도 채워지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제14회 카셀 도쿠멘



6



7

타의 주 행사장으로 사용되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2018년 전체 공간을 활용한 재개관 준비에 착수했고, 2020년 2월 드디어 온전한 모습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설립에서 완전 운영까지 20년이 걸린 셈이다.

네모반듯한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대형 에스컬레이터가 시선을 압도한다. 지하에서 옥상까지 총 8층 규모이고 전시장은 지하 1층과 지상 4개 층에 위치해 있다. 유리로 마감된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이 넓고 밝은 수평의 건물이라면, 창문이 거의 없고 층이 높은 EMST는 도회적인 수직의 뮤지엄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곳에선 20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다양한 매체의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다. 소장품은 그리스 미술가 151명과 해외 미술가 105명의 작품 1,300여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 유럽 국가나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과 비교해도 무척 적은 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볼 일이다. 미술관

창문이 거의 없고 층이 높은 아테네 국립현대미술관

측도 기증과 구입을 통해 소장품의 양적·질적 성장을 꾸준히 꾀한다고 밝히고 있다.

2~4층의 전시장은 영구 소장품을 위한 공간이고 1층과 지하 1층은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여는 공간이다. 현재 소장품 전시실에서는 3개의 다른 주제로 78명의 작품 172점을 전시하고 있다. 낸 골딘, 모나 하툼, 쉬린 네샤트, 소피 칼,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있다. 설치미술가 김수자의 보따리 작품들과 장영혜중공업의 영상 작품도 이곳에서 영구 소장한다.

비디오 아트 컬렉션도 주목할 만하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을 비롯해 빌 비올라, 브루스 나우만, 비토 아콘치, 토니 아워슬러 등 세계적 명성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회화, 설치, 사진, 비디오, 뉴미디어, 실험적인 건축까지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아우르는 전시가 정기적으로 열



©Katerina Paraskevay/EMST

린다. 아크로폴리스와 인접한 옛 산업 시설은 이렇게 동시대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미술 공간으로 재탄생해 아테네를 더 젊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다.

국제적인 현대미술 도시를 꿈꾸며

국가 주도 미술관 설립 이전부터 그리스 미술계를 이끈 주체는 개인과 화랑들이었다. 그리스의 미술품 수집가 안토니스 베나키(Antonis Benaki)는 35년간 수집한 소장품 3만7,000점을 토대로 1930년 베나키 박물관

아테네 국립현대미술관은 20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현대미술을 소개한다

아테네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켈넬 기어스의 <Akropolis Redux (The Director's Cut)>

Benaki Museum을 설립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미술관은 현재 선사시대 유물부터 현대 회화까지 6만여 점의 방대한 소장품을 자랑하는 아테네의 미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00만 달러를 들여 리노베이션하고 2000년에 재개관한 후 분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아테네 곳곳에서 6개의 분관을 운영하며 미술 문화 저변 확대에 힘쓰는 중이다. 1993년 그리스 화랑들이 연합해 시작한 '아트 아티 나(Art Athina)' 역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능 있는 젊은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자국의 독자적인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아트 페어로, 현대미술을 대중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역할과 그리스 미술가를 해외 미술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테네는 유물의 도시에서 국제적인 현대미술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중이다. 찬란히 꽃피웠던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도시, 아테네로 향하고 싶은 이유이다.

글 이은화 미술 평론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런던 소더비 예술대학원에서 현대미술학,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표 저서로 『그랜드 아트 투어』 『가고 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Stephane Grapet/EMST



©Katerina Paraskevay/EMST



MATTINIC 베토벤

베토벤 250 배우 김석훈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5월~12월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2.17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서진, 협연 첼로 안젤라 진영 박

모차르트 - 돈 조반니 서곡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Op.129
베토벤 - 교향곡 5번 C단조, Op.67



58

라운드테이블
2020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온라인 포럼

64

독립예술영화관
(컴, 투게더)

66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성남문화재단
소식

72

캘린더



Inside

Seongnam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시티'를 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진입한 지금, 문화예술 분야 역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모색 중이다. 성남문화재단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2020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온라인 포럼'을 준비했다. 지난 11월 6일 성남미디어센터 다목적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포럼은 '창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성 및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와 예술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2020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온라인 포럼>

일시 11월 6일(금) 15:30
장소 성남미디어센터 다목적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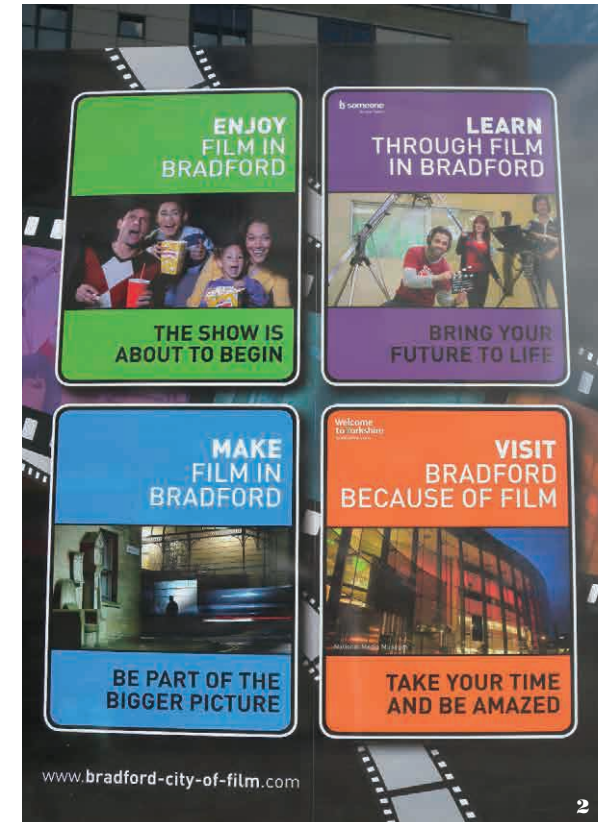
발제 정종은(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영화(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 토론 좌장 임학순(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토론 허수빈(태평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
황기석(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 게임콘텐츠팀 주무관)
이주영(성남미디어센터 시민라디오제작단)
심보미(성남문화재단 미래전략부 부장)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와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해 창의 생태계 환경의 현황과 방향성,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강연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종은 교수는 '성남 크리에이티브 시티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과 제언'의 발제를 통해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가치를 전했다. '크리에이티브 시티', 혹은 '창조도시'는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 발전과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키워드다. 창조도시론 패러다임을 확산시킨 대표적인 학자인 찰스 랜드리와 리처드 플로리다의 견해를 살펴보면 랜드리는 도시 전체의 유기체적인 연결에,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에 중점을 둔다. 정종은 교수는 성남시의 경우 두 요소의 융합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성남의 전략과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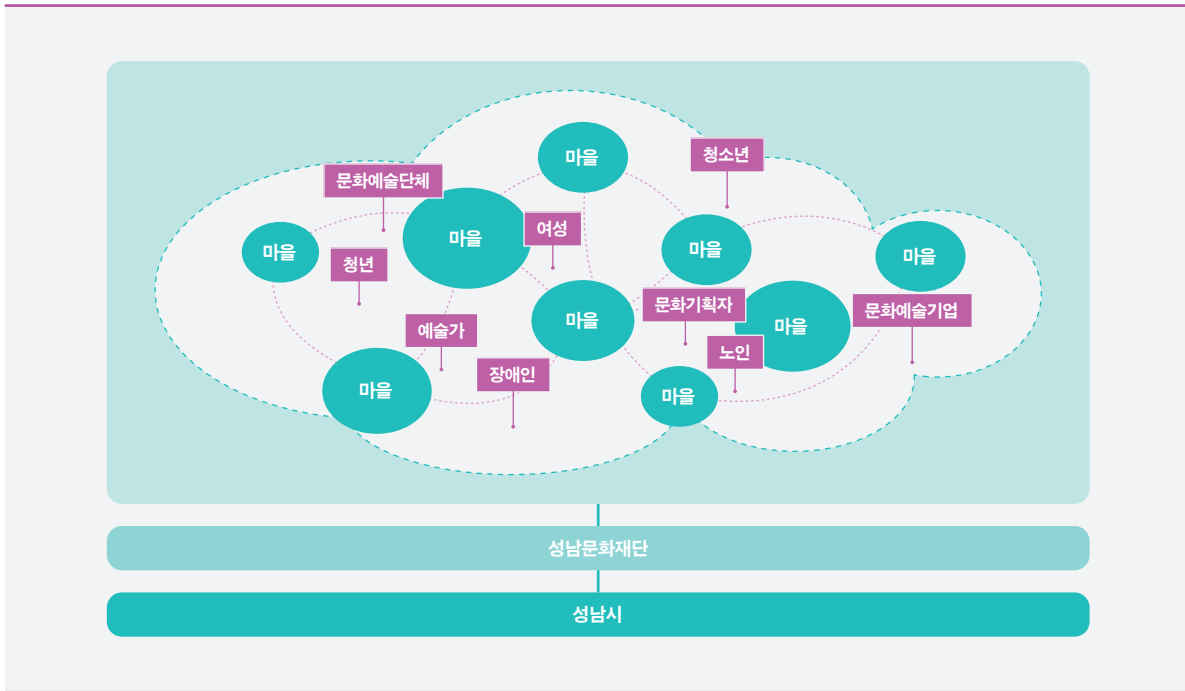
대표적인 예는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이하 UCCN)'에 가입된 영국의 글래스고, 에딘버러, 브래드퍼드 등의 도시들이다. 쇠락해가던 제조업 기반 도시 글래스고는 문화수도화 창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하였고, 에딘버러는 민간 중심 페스티벌이 추가로 클러스터링(Clustering)되면서 축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문화적 도시 아이덴티티를 시민과 소통하며 만들어간 글래스고나, 문화예술계 리더가 도시 발전 거버넌스 전략을 주도한 브래드퍼드 사례처럼, 정 교수는 성남시의 문화적 매력과 역량을 살리는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단계적 클러스터 구축 전략 계획 마련, 도시 아이덴티티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 문화 주도의 지역 혁신체계 및 리더십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 문화예술계의 전문가와 예술가, 시민이 함께한 이날 포럼은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2 영국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선정된 영화 도시 브래드퍼드, 영화와 관련한 풍성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창조도시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환경·요소 인프라, 가치사슬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 C&D(Connect&Development)를 통해 문화의 역할을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덧붙였다. 성남시의 경우,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문화의 C&D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화계 내외부의 C&D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술 산업 내부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 중인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와 연계한 예술 스타트업 육성한다면 이를 통해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 사이에 자리한 새로운 예술 생태계 창출 역시 가능해 보인다.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단순 결과물이 아닌 이를 특징짓는 의식 문화와 관계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추진 체계의 역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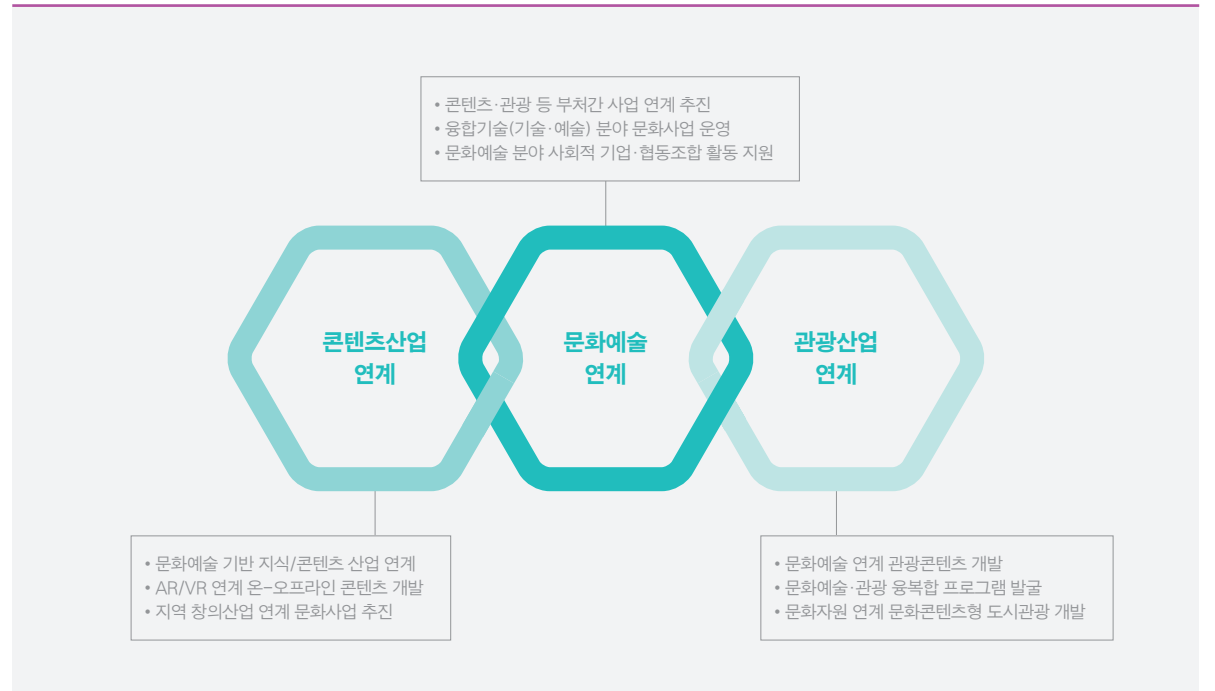
출처: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창의도시로 가는 길, 문화자치와 문화민주주의

경기연구원 김성하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창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경제와 산업 중심이던 과거의 도시 발전 개념이 변화한 오늘날, '창의도시'가 화두이다. 그렇다면 왜 '창의'도시일까? 기존 산업 중심 도시의 쇠락 후, '문화'와 '창의'를 통한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가능하다는 '창의도시'의 개념이 생겨났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창의도시 지속의 핵심 가치인 '안전·지속성·포용·회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대한 발전적·실천적 도구들이 필요하다. 지역과 일상의 가치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의 전문가, 행정 주체, 시민사회가 다 같이 협력하고 참여할 때, '문화'와 '창의' 성장 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 발전 구조가 형성된다. 김 연구위원은 "사람 중심으로 문화를 강화시키고, 혁신 성장과 네트워크 중심의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가치를 연결해 추진하는 것이 성남시의 실천 과제"로 보이며,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프랑스의 두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의 '문화민주화'와 자크 랑의 '문화민주주의'다. 문화 격차 현상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강력했으나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말로의 '문화민주화'와 달리, 자크 랑은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문화는 생활 그 자체이며 어느 개인이나 계층, 한 분야의 소유물도 아니다"라 말하며 '창작'과 '지방 분산화'를 강조했다. 즉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은 관이나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아닌, 지역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의하며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집행될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두며 '문화자치'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이 과정들은 모든 관계 구성원이 서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자치와 문화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실행을 위해, 정책과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역발상을 제안한다. 시가 재단에 예산을 배정하고, 재단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사회와 단체, 시민에게 공모 기회를 주는 기존 체계를 뒤집는 것이다. 마을과 구성원들을 최상위 단계로 두고, 그에 따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문화자치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는 것이다. 관련 실행을 위해 필요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다수가 수평적 관계 속에 계획에서 실천으로 향하는' 기본 철학을 기억하고, 재단 역시 사업이 아닌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는 변화가 필요하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실천을 위한 열린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성남이 꿈꾸는 창의도시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방향: 지역혁신 문화산업 연계



출처: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의 생태계와 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책 방향'의 발제에서 창의 생태계 개념에 기반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시했다. 창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창의적 인재), 장소(창조적 공간), 경제(창조적 산업)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협의와 소통이 핵심이다. 이들이 상호 공진화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창의 생태계가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연결성'을 보장하는 필수 도구들이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인 만큼, 재단의 여러 사업과 역할들이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안, 비단면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영역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재단은 '돈을 벌어오는 곳'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재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인 콘텐츠 영역과 관광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생활권 관광, 로컬 관광이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지역의 자원 개발과 관련한 일부 역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의인재 발굴·육성·활용, 지역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지역혁신 문화 산업 연계, 거버넌스 구축 및 연결성 증진을 담아낸 정책 추

진도 유념할 부분이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이 진행 중인 예술인 실태 조사처럼, 지역의 창의전문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공간 역시 이 조사를 토대로 마련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지역문화 정책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여러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태 조사와 기초 데이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창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세 전문가의 발제 뒤에는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수빈 태평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 황기석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 게임콘텐츠팀 주무관, 이주영 성남미디어센터 시민라디오제작단, 심보미 성남문화재단 미래전략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성남 태평공공예술창작소 1기 입주작가이자 태평동 지역주민이기도 한 허수빈 작가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공공예술'의 방향성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문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리 조성권 축제, 야시장, 벽화 등 지자체별로 유사한 전략은 창의성 없이 소모적인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제로섬 게임의 느낌

이 강하고, 이런 투자와 노력을 '원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투입한다면 오히려 독특한 자생적 문화가 생성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다. 정중은 교수는 "프로세스 자체보다는 톱다운 진행 방식이 문제"라며, "앞서 언급한 영국의 UCCN 가입 도시 사례 역시 과정은 비슷한 방식이지만, 결국 지역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버넌스의 차이에서 결과물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 스스로의 니즈를 기획할 수 있는 시민 주도 거버넌스를 권장하는 가운데,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성하 연구위원 역시 "계획은 유사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된다. 계획 수립이 아닌 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실천에 대한 구성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영화 연구위원은 "과거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했던 문화특구 등의 사례에서 허 작가의 지적과 같은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문제의식과 참여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서 동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문화도시 지정 역시 1년은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특색과 자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주민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며,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방향의 모색 가능성 역시 기대된다"고 답했다.

다음은 황기석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게임콘텐츠 주무관의 판교콘텐츠거리 조성사업 방향성에 대한 의제가 이어졌다. 게임의 메카 판교가 종사자 이외의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상황 속에, 문화적 다양성 제고를 통해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성화되는 기반 마련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정중은 교수는 "모든 기초단체, 혁신도시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활성화로, 우선 목표시장 선정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인지 게임 애호가인지, 후자라면 전국의 게임 애호가들이 꼭 와야 할 공간, 관련 콘텐츠와 자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게임 시장의 성장 속 정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지금, 단순히 향유자 증대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형 혁신에 대한 시도, 또 국가적 차원의 게임 콘텐츠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WHO의 게임 질병 코드 도입과 같은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더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양성을 고민하면서도 정작 행정 주체, 공급자 중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 각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개별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양성이며, 그 구조가 자리 잡을 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시민참여형 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창의 생태계와 연계하며 발전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성남미디어센터 시민라디오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씨는 시민 미디어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코로나19로 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미디어 활동의 발전 방안, 또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방안에 대한 안건을 제기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지금, 지역을 직접 탐색·발굴하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리라 전망되며, 그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교육 콘텐츠로 가치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최영화 위원의 답변은 시민 중심의 자발적·자생적 활동 가능성에 한층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의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은 현재의 복합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재단이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 전략의 접근법,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의 구조와 이를 운영하는 이행 점검 체계에 대한 방법론, 또 새로운 생태계 구축 과정에 적절한 지표 설정과 결과물의 평가 체계에 대한 질문을 더했다. 정중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연과 전시 영상화 작업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되는 지금, 새로운 창작과 향유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과거 성남이 사랑방문화클럽, 문화

3, 4 성남미디어센터 다목적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0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온라인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남문화재단의 선제적인 대처 방안과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
5 이날 포럼에서는 '창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성 및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 건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통화 등을 앞서 선도하며 롤 모델이 되었듯, 이제 디지털 전략 등 예술과 콘텐츠산업의 C&D를 새롭게 추진한다면 좋겠다. 새로운 디지털 문법의 탐색과 함께 대면 만남의 소중한 가치 역시 살릴 수 있는 양방향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거버넌스의 이행 점검 체계에 관해 "재단이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며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이 아닌,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서 발제에서 언급한 4대 기본 철학을 점검 이행 지표로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력이 구성원에게 잘 분산되고 수평적 관계를 이뤄가고 있는지, 상하 개념을 바꾸고 인식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의 활동과 과정, 변화를 점검하는 것을 추천했다.

최영화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연계성을 통한 다양한 사업이나 활동의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 체계가 아닌, 여러 융복합과 협업을 독려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체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참여 인원 등 정량적 평가에 집중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과 대안 발굴, 온라인 활동 등을 포괄하는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좌장을 맡은 임학순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문화 영역과 콘텐츠 산업 영역의 연계와 융합에 관한 논의와 고민이 이제 그 필요성과 수요 측면에서도 본격화된 지금,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연결성과 기반, 시너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오늘 논의한 생태계 접근과 가치 창조, 거버넌스와 같은 부분들은 성남뿐 아니라 많은 도시들의 비슷한 고민이자 문제인 만큼, 앞으로 함께 논의를 공유해 가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전환기의 중심에서, 창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책에 관한 이날의 담론이 창의도시 성남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 사진 최재우



〈컴, 투게더〉신동일 감독, 2017

비루해도 아름다운, 삶과 사람

지칠 대로 지친 세 사람이 있다. 중년의 부부인 범구와 미영, 그들의 딸인 한나. 〈컴, 투게더〉는 이들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홈드라마라고 할 만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뒹겨 얽히고설키는 방식이나 가족이 직면한 하나의 커다란 문제에 천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통상의 가족 드라마와는 달리 보인다. 무엇보다도 〈컴, 투게더〉는 세 인물 각각의 사연의 풀뚝을 온전히 살려 나가는 구조를 취한다.

범구(임형국)는 18년간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 서클이 짙게 드리웠고 만사 귀찮다는 듯 무기력한 표정이다. 기운 없는 몸뚱이는 자꾸 잠으로 빨려 들어간다. 한나(채빈)는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의 합격자 예비 18번이다. 정작 본인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면서 딸에게

'대학, 대학' 하는 아버지, 엄하다 못해 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카드 회사 영업 사원인 미영(이혜은)은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회사는 대놓고 직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미영도 어떻게든 회사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다. 연회비 대납, 타 카드사의 카드 발급 등의 꼼수와 편법을 써서라도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고 싶어 아등바등한다. 신동일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컴, 투게더〉의 인물들이 처한 저마다의 곤경은 좀처럼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원류를 짚어보면 공통된 이유가 있다. 부모와 자식 세대의 입장차, 성별에 따른 경험의 간극뿐 아니라 인물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으나,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쟁 사회가 부추기고 만들어낸 가시적, 비가시적인 위력이다. 그들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인정받아야만 해 고통스럽고, 그렇지 못해 또 한 번 고통스럽다. 더 가혹한 건 두 번째 이유다. 무자비한 시스템 속에서 인물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열하며 위악을 떨고 있는가를 목도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신의 못난 욕망, 그 민낯을 직면해야만 한다. 자신의 뒤를린 욕망을 딸을 통해서라도 실현하고자 폭력적인 언사도 마다하지 않는 범구, 합격자 예비 후보가 한 명이라도 줄면 본인이 합격할 수 있을까 싶어 같은 대학 합격 통지를 먼저 받은 후배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고 돌아선 한나, 회사 소장과 자신의 경쟁 상대인 동료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추적하려다 그들의 사고 순간을 목격하면서 되레 커다란 죄책감과 자기 부정에 빠지는 미영까지. 영화는 잔인하다고 느껴질 만큼 인물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워 그들이 얼마나 비루한 존재였는지를 똑바로 바라보게 한다.



다음 세대의 얼굴, 희망에게

그럼에도 〈컴, 투게더〉는 그들을 냉소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끝을 맺을 생각이 없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인물들에게 자기 정화와 각성의 순간을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다음을 기억할 수 있게 꿈 자리를 내준다. 영화의 엔딩 시퀀스는 그런 의미에서 꽤 의미심장하다.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가족이 웃으며 함께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세 사람이 교외로 나가 함께 길을 걷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비를 피하려 이들은 뛰고 범구가 먼저, 뒤이어 한나가 발을 헛디딘 듯 넘어진다. 그들을 지켜보던 미영도 남편과 딸 곁에 몸을 누인다.

축축한 땅 위에 가만히 누워서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는 세 사람. 영화 내내 몸과 마음의 감각을 잃은 듯 보였던 가족의 얼굴에 비로소 생기가 돈다. 이때 카메라는 부감으로 가족들을 한 화면

으로 내려다보더니 곧이어 부드럽게 하강해 한나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이 시선의 이동에는 감독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이들에게 잠시지만 고달픈 일상이 아닌 고요한 시공간을 허락하고,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니어도 짧은 해갈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끝끝내 기대고 바라봐야 할 곳은 이제 막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다음 세대의 얼굴, 한나임을 강하게 환기한다.

글 정지혜 영화평론가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인디다큐페스티벌2020 집행위원, 영화 웹진 〈REVERSE〉 필진, 『너와 극장에서』(공저, 2018), 『아가씨 아카킴』(공저 및 책임 기획, 2017), 『독립영화 나의 스타』(공저, 2016) 등에 참여했다.

〈컴, 투게더〉는 성남문화재단이 2015년 제작지원한 작품입니다.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성남문화재단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이 함께한 독립영화를 소개합니다.



SNCF NEWS

성남아트센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등 주요 공연 연속 매진



©최지은

11월 13일 조성진 리사이틀이 진행된 콘서트홀 로비.
공공한 입장 및 동선 안내, 관객들의 질서정연한 협조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13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전국 투어 리사이틀 성남 공연 현장,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은 모처럼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가득했다. 낮 3시·오후 7시 30분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연의 티켓은 예매 오픈 1분 만에 빛의 속도로 매진되며 클래식계 슈퍼스타다운 놀라운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은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 좌석제로 정상의 절반 수준인 객석의 50%만 오픈되었지만, 코로나19의 적막이 감돌던 공연장을 찾아온 반가운 활기였다.

비단 조성진 리사이틀만이 아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12월의 주요 공연들은 모두 티켓 오픈 이후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상반기 공연에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기된 뒤 긴 기다림을 견뎌야 했던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 포레스텔라 공연 역시 순식간에 매진을 기록했다. 연말 시즌의 단골 레퍼토리인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세계 무대를 누비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공연 등 12월의 다른 공연들 역시 뜨거운 관심

이 예매로 이어지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측 불가의 확산 상황으로 많은 공연장이 안타까운 휴관을 반복하던 가운데, 공연에 대한 애호가들의 갈증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남문화재단 측은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들의 호응에 직원들 역시 감사하는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관객이 안전하게 공연을 감상하고, 예술의 아름다움으로 위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페라 정원 GARDEN

2020 OPERA



로미오와 줄리엣

Roméo et Juliette / C. Gounod

12. 12. SAT. 17:0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지난 400년간 인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온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프랑스 낭만주의 최고 작곡가 구노의 걸작 오페라

SNCF NEWS

주민과 예술가, 마을이 함께 만든 예술: <태평동 양말목 이야기> 전시



11월 19일 진행된 전시 개막식



양말목 등 공예 재료로 구성된 아트키트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태평공공예술 창작소가 주민들과 예술가가 함께한 <태평동 양말목 이야기> 전시를 진행했다. 재단은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이 문화에

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해왔으며, 태평공공예술창작소 역시 창작소 공공 프로젝트를 비대면으로 전환,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태평동 양말목 이야기>는 태평동 소재

양말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양말목'을 활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양말목 등 공예 재료를 담은 아트 키트를 주민들에게 배송하고, 주민들이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해 만든 각각의 작품들을 다시 수거, 두 예술가(엄아롱, 송하나)가 새로운 설치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작품들은 태평동 골목 야외 공간(태평동 1631번지)에 11월 19일부터 전시를 시작해 12월 4일(금)까지 선보인다. 11월 19일 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태평동 양말목 이야기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공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즐기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에는 전시 공간에서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태평동 연결고리>를 상시로 운영하며, 참여 예술가인 송하나 작가와 태평동 골목을 산책하며 드로잉 과정을 함께하는 <태평동 드로잉 산책>, 참여 예술가 엄아롱 작가와 작업 이야기를 나누는 <아티스트 토크>도 예정되어 있다.

* 연계 프로그램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MERRY CHRIST CON 20 MERRY MAS CERT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지휘 최수열 첼로 양성원 연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J. LIVINGSTON / R. EVANS SILVER BELL
P. I.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CO THEME, OP.33
L. ANDERSON CHRISTMAS FESTIVAL
P. I. TCHAIKOVSKY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IN C MAJOR, OP.48

2020년 12월 24일(목)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R/4만원, S/3만원, A/2만원

SNCF NEW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12월 10일 <후원회의 밤> 개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후원회장 김진환)가 <후원회의 밤-Adios Red & Blue>를 12월 10일(목)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한다. 후원회원 및 가족, 문화예술 애호가들과 함께하는 <후원

회의 밤> 행사는 품격 있는 공연과 함께 후원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원회의 뜻과 활동을 알리며 교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의 부제인 'Adios Red & Blue'는 '코로나레드'(분노)와 '코로나블루'(우울)에서 벗어나 2020년의 어려운 상황을 끝내고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부 무대에서는 W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보이스,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박성희가 뮤지컬과 오페라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며, 2부에서는 안무가 김재덕을 주축으로 구성된 현대무용단 모던테이블이 한국의 전통 소재인 '품바'를 현대무용으로 재해석, 해외 무대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은 <다크니스 품바>로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성남시체육회 이용기 회장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체육회가 성남시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11월 17일(화) 성남아트센터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성남시민의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에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스포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남문화재단의 노재천 대표이사와 강승호 문화국장, 성남시체육회의 이용기 회

장과 권금중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기획 사업 홍보를 함께하고, 특히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협력하며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문화예술이 가득한 대회로 만들자는 뜻을 모았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제101회 이사회 개최



성남문화재단은 11월 11일(수)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3층 이사회실에서 제10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은수미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단 회계규정 개정(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안), 2021년도 본예산(안) 등 총 5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 원안 가결되었다. 상정 안건 심의 종료 후에는 은수미 이사장과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참석 이사진이 코로나 상황 속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정책 및 공간 개발,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FORESTELLA

NEELIA

CONCERT

FANTASIA

SIAM

포레스텔라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

2020. 12. 31(목) 19:3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주최 / 주관 성남문화재단

티켓가격 | R석 132,000원 S석 110,000원 A석 88,000원 B석 55,000원

공연문의 |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12

December

오 오페라하우스 **녹** 콘서트홀 **왕** 앙상블시어터 **미**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 **큐** 성남큐브미술관 **반** 반달갤러리 **상** 상설전시실 **갤** 갤러리 808 ★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왕 박태현음악제(17:00)	2	3 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19:30) ★ 녹 성남시립합창단 '미리크리스마스콘서트'(19:30)	4 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19:30) ★ 녹 성남시립합창단 '미리크리스마스콘서트'(19:30) 왕 연극만원 <오백에 삼십>(16:00, 20:00) ★	5 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15:00) ★ 녹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19:00) 왕 연극만원 <오백에 삼십>(14:00, 17:00) ★	6 오 김창옥 토크콘서트(15:00, 18:00) 왕 연극만원 <오백에 삼십>(14:00, 17:00) ★
7	8	9 녹 성남시립국악단 제62회 정기연주회 (무관중)	10 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의 밤(20:00) ★ 왕 민악숫대 '별탈업시'(19:30) ★ 미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시사회: <테우리>(19:00) ★	11 왕 민악숫대 '별탈업시'(19:30) ★ 미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시사회: <두 도시 이야기>(19:00) ★	12 오 뮤지컬 <신비아파트>(11:00, 14:00, 16:30) 녹 오페라정원<로미오와 줄리엣>(17:00) ★ 왕 현대 피아노 음악 시리즈 VIII(무관중)(19:00) 미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시사회:<담쟁이>(14:00) ★	13 오 뮤지컬 <신비아파트>(11:00, 14:00, 16:30) 녹 성남시여성합창단 (무관중)
14	15 녹 2020 우리소리를 찾아서(15:00)	16 오 나윤선 재즈 콘서트(20:00) ★	17 녹 마티네 콘서트(11:00) ★	18	19	20 녹 정경화&김선옥 리사이틀(17:00) ★
21	22	23 녹 성남시립교향악단 제173회 정기연주회(19:30)	24 녹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20:00) ★	25 오 최현우의 발리브(14:00, 18:00) 녹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생상스의 동물사육제(17:00)	26 오 최현우의 발리브(14:00, 18:00) 녹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생상스의 동물사육제(17:00)	27 녹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19:00)
28	29 왕 수정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17:00)	30 왕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고희vs고갱(19:30)	31 오 포레스텔라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19:30) ★ 녹 2020 송년음악회(20:00) ★			

* 모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객석 한 자리 띄어 앉기' 및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남큐브미술관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전시명	전시 기간	장소	비고
신소장품전	1월 17일~12월 20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사전예약제 회차별 인원 10명 (총 7회 차)
경기도유망작가전 <생생화화生生化化-8 Artists Voyage>	11월 6일~12월 20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	사전예약제 회차별 인원 49명 (총 4회 차)
2020 성남의 발견전: 이나영 <네버랜드 Neverland>	11월 27일~12월 20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	사전예약제 회차별 인원 15명 (총 7회 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든 전시는 사전 예약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회차별 예약 인원 제한이 상이하오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최충열/박지향 (주)유엔젤 대표이사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여은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원근/홍은희 (주)신성슬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희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승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교묘아트웍션 이사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민수/이희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하이종덕/김영주 前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前 단국대학교 문학예술대학원 대표이사,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철쭉회원
강정환/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김삼규/정효정 (사)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김영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장세영/김준식 삼성전자 상무 / LF패션 전무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정승림/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정은경/박민결 모란새로운악곡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김연태/이주숙 (사)성남시치과의사회회장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정인택/유경희 미술단체 <線과 색> 前 명예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최병주/박인수 법무법인 청담 대표,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남선우/정정선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마희자/조득환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이매회원
(주)평화기업 이사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림에이전시 대표

손의명/손익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까치회원
송 자/탁순희 세이프키즈코리아 대표이사, 前 (주)대교 이사장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장미영

오훈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명예회원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신선희
하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김진환 부회장 강효주, 박지향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4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개인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개인	철쭉	500만 원 이상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치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기부회원